



HANSAE
WINTER
IN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31 WINTER

COVER STORY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을 보면 꼭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가슴을 채웠던 이와 이순지의 '러브레터'. 여러분이 겪는 인상적인 겨울 영화는 무엇인가요?

발행일: 2023년 1월

창간일: 2014년 7월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69

발행인: 김동녕

편집기획: 대외협력팀

인쇄: 동아출판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한세에스24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T. 02)3779-0800



WINTER THEME A GIFT FROM THE HEART

편집자글 2023년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대신...	04	BUKAROO 보도자료 버카루, 배우 나인우와 함께 겨울 아우터 시리즈 화보 공개	48
한세인 칭찬릴레이 칭찬릴레이	06	이상현의 건강학개론 건강하게 살려면? '의식주'가 기본	50
한세일보 '창립 40주년' 한세실업 "혁신적인 기업 문화로 한세2.0 맞이할 것"	08	2022 베스트 셀러 에스24 2022년 베스트셀러 트렌드 및 도서 판매 동향	52
[특집] 한세실업 40주년 Passion for Fashion World wide	10	에스24 보도자료 에스24 보도자료	60
34기 신입사원 인터뷰 한세:인, 오늘도 출근	16	전사강연회 한세에스24홀딩스, 전사강연회 소식!	65
김익환 부회장 인터뷰 "자유로운 기업문화 다이내믹 한세의 힘"	20	책임아웃 5주년 특집! 오은,프엠,캘리의 인생 장면, 인생 책	66
매체 주요기사 매경이코노미, 문화일보, 이코노믹 리뷰	22	문화다방 문화다방	68
ESG특집 한세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26	동아출판 보도자료 동아출판 보도자료	72
IR뉴스 한세에스24홀딩스, 지난 10월 온라인 글로벌 기업설명회(IR) 개최	29	동아출판 신간소개 동아출판 신간소개	73
피처 <청춘은 죄가 없습니다> 청춘은 죄가 없습니다	30	동아출판 SNS 동아출판 SNS 이벤트	76
최고운 큐레이터 아트슈머, 예술과 함께 즐기는 연말연시	32	신재현의 '마음을 살피는 기술' "당신의 올해는 충분했습니다"	78
NBA보도자료 NBA 트레디한 '코트 에어 다운 라인' 선배	34	이변의 생활법을 F&Q 교통사고와 보험	80
올겨울 한세를 위한 겨울 인텔 WINTER LOOKBOOK FOR HANSAE	36	재단 명정 사무국장 인터뷰 "우리 재단, 국내 유일무이한 동남아시아 문화교류 가능한 곳이지요"	84
NBA_KIDS 보도자료 NBA키즈, 완판 신화 '시리얼 다운' 라인업 업그레이드 출시 "주요 매장 리뉴얼 및 리유저블 쇼핑백 출시"	38	대동맛지도 한세:인 대동맛지도 코너	86
NBA_KIDS SNS SNS 엿보기	42	이용재의 미식에세이 '크리스마스에도 밥 배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88
PGA TOUR&LPGA 보도자료 10-11월 보도자료	44	요리요정 이탐장의 레시피 연말연시 파티, 탕글탱글 신선한 '굴 요리' 어떠세요?	90

A GIFT FROM THE HEART



겨울은 안락함과 맛있는 음식과 따스함, 다정한 손길과 난로 곁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다. 겨울은 가정의 계절이다

Edith Sitwell

Winter is the time for comfort, for good food and warmth, for the touch of a
friendly hand and for a talk beside the fire: it is the time for home.

겨울이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이불 속에 있고만 싶죠. 그럴 땐 상상해보세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 지!

HANSAE

fashion worldwide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의 패션문화를 선도합니다.



한세는 국내 3개 계열사, 해외 32개 법인을 통해
2022년 기준 패션 부문 매출 2조 5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한세실업, 한세 VN, 한세 TN, 한세 TG, 한세 호찌민, 한세 하노이, 한세 다낭 오피스, 한세 탄 호아 오피스, 한세 겐터 오피스, 한세 인도네시아 우타마, 한세 인도네시아 우타마-마질렐카, 한세 솔로 오피스, 보민 페르마타 아바디, 한세 인도네시아 숙세스, 한세 스마랑 오피스, 한세 인터내셔널, 한세 피놀라, HS 어패럴, 한세 GSN, 한세 아이티, 미얀마 에이와디, 한세 미얀마, 한세 바고, 어패럴 매뉴팩처링 파트너스, 한세 뉴욕 디자인 오피스, 한세 벤본빌 오피스, 한세 캘리포니아 오피스, 한세-유럽, 스페인 오피스, 칼라엔터치, C&T VINA, C&T G-TECH, 한세엠케이 만쿤(상하이)상무유한공사, 한세드림 가해수복식상해유한공사, 한세드림 재팬



2023년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대신...



요즘 TV를 틀면 가장 자주 보이는 분, 누굴까요? 아마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일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뿐 아닙니다. 유튜브에선 ‘멘탈 관리’, ‘불안 관리’ 콘텐츠가 조회 수 4~50만을 거뜬히 넘습니다. 바야흐로 ‘정신과 의사의 시대’입니다.

시 전자의 사고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환경에 속해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좋아야 한다.’

제가 몸담고 있는 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사내 전사강연회를 엽니다. 지난 11월, 대체에 맞춰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요즘 주가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의’ 주인공 김지용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부분에선 긍정적인 영향도 줍니다. 더 좋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면 추구하는 바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빠듯’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사강연회가 있는 날은 아침 7시까지 출근하는데, 그러다 보니 막상 강연을 들을 땐 솔직히 피곤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날만큼은 한마디 한마디가 꽃피더군요. 선생님은 진로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WHY ME?(왜 나에게?)와 WHY NOT?(너에겐 왜 안 돼?)이 대조된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상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많기에 열심히 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 된다면 고마울 따름이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체 왜 나에게?’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왜 내 가정은?’, ‘대체 왜 내 직장 동료는?’, ‘대체 왜 나에게 이런 나쁜 결과가?’ 김지용 선생님은 “조금은 잔인한 말”이라며 “너에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반문이 와 닿았던 이유는 저 역시

지난 사보 편집자의 글을 기억해주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여러분께 ‘행복해질 결심’을 해보길 제안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난 사보에 이어 이번 사보에서도 ‘행복학 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 대신 이런 위로를 건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낙담하지 마세요’

편집자
이시영

칭찬릴레이

계절을 색색으로 물들였던
단풍이 겨울 비를 만나
낙엽으로 지고, 어느덧
코끝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절, 동료들과 칭찬 한마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아요.



한세실업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항상 여름 & 여름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우븐 영업을 담당하는 7A3부 부서장 이정학입니다.

칭찬하고 싶은 주인공

아직도 지속하여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지만 코로나의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함께 해준 3명의 팀장님들 : 남현우 팀장님, 배철용 팀장님, 서정민 팀장님입니다.

우븐이 특히 2021년도에 많이 어려웠고, 내부적으로 인원구조조정, 조직변경, 공장변화등 상당한 도전의 시기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공장의 LOCK-DOWN되는 시기의 납기 ISSUES, 소비자의 재택근무, 활동저하로 우븐의 외부 비즈니스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줄일 부분은 잘 줄이고, 늘릴 부분은 잘 늘려서 다음을 준비하는 도약의 시기를 잘 SETTING 한 것 같습니다.

늘 같이 지속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조직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오다를 하면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앞전의 결과가 좋았으면 이를 좀 더 낮게 하고자 노력을 하였을 것이고 이전 결과가 안 좋았으면 분명, 조직이든, 공장이든, 바이어든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작년에는 강하게 DRIVE를 걸어 진행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힘든 부분이 많았을텐데, 이를 잘 이해하고, FOLLOW UP해준 각 팀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세가 의류종합회사입니다. 이는 R&D도 하고, 원단도 하고, 제품 생산도 하지만, 니트도 하고 우븐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보면 저마다 각자의 개성에 맞춰 다양한 옷으로 본인의 직업, 개성, 생각 혹은 단순한 보온용으로 우리가 만든 한세 이름의 옷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론, 가격에 묻혀 계산기로만 옷을 볼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식주의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 한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옷을 좀 더 좋아하고, CUSTOMER에게 좋은 가격에 최고의 디자인으로 보답하는 옷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아출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동아출판 HR팀의 이주현 사원입니다. 회사의 채용과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주인공

저는 디지털전략본부 IT팀의 박대식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업무 상 과장님께 질문을 하거나 요청드릴 일이 종종 있는데, 항상 빠르고 친절함 피드백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제 질문이 현 상황에서 처리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어느덧 낙엽이 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임직원 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남은 2022년도 행복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24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에스24 마케팅본부 BX팀 김민희입니다. 현재 에스24의 언론홍보와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주인공

저는 BX팀 박숙경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입사 후 처음으로 뵈게 된 사수님으로, 현재 저와 함께 언론홍보와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서는 작년 인턴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입사원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십니다. 특히 언론홍보 직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종종 찾아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몸소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곁에서 열심히 배워 도움이 되는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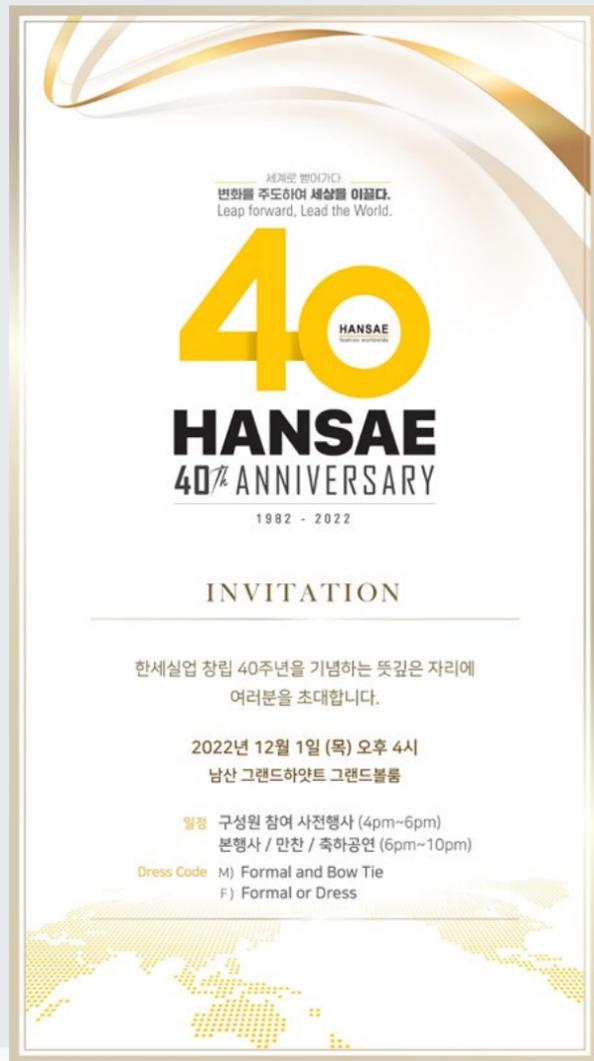
1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한낮에는 아직도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 가을 날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곧 다가올 겨울도 그리고 새해도 행복하게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릴레이에서 지목받으신 분들,

다음 호에서도 동료를 위해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립 40주년’ 한세실업 “혁신적인 기업 문화로 한세 2.0 맞이할 것”

올해 최고 실적 경신한 한세실업, 앞으로 IT 시스템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 높이고 환경 보호 앞장
김익환 부회장, “퀀텀점프 위해 혁신적 기업문화로 신성장 동력 마련할 것”



40th Anniversary

글로벌 패션 ODM 기업 한세실업(대표 김익환, 조희선)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IT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패션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11월 16일 밝혔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한세실업은 전 세계 각국의 의류 수출을 책임지며 글로벌 패션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디지털 기반 공급망 구축, 생산 공장의 수직계열화 완성 및 사업 카테고리 확장의 선순환 사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업 문화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실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IT 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여왔다. 수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햄스(HAMS, 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가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도입한 햄스로 제품생산 과정의 모든 흐름을 데이터화해 전 공장의 가동 및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외부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덜고 있다.

2017년부터는 자체 3D 디자인 기술로 가상 샘플을 제작하고 있다. 불필요한 샘플 원단의 폐기물과 샘플 전달 시 소요되는 포장재, 운송 연료 등을 줄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 보호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김 부회장은 “현물 원단의 텍스처(질감), 패턴(무늬), 컬러감까지 그대로 표현해 실물 샘플만큼 정교한 구현이 가능한 한세실업만의 3D 기술은 실제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R&D센터에 지속 투자하고 가상 모델인 아바타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세실업은 2025년까지 실물 샘플의 80% 이상을 3D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세실업의 혁신적인 IT 기술력은 친환경 경영에도 일조하고 있다. 빛물 재활용을 위한 ‘빛물 저장 시스템’, 에어컨 대신 작업장 내 온도를 조

절하는 ‘워터 쿨링 시스템’ 등 2019년부터 해외 공장에 다양한 친환경 의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시스템 구축 전인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물 사용량 8천만 리터 이상, 유류 사용량 14만L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20% 이상 감축, 석탄 사용량 100% 절감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 재활용 섬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리커버’와도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세실업은 사이즈 라벨 부착, 폴리백 작업, 가먼트 폴딩 등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업무 일부도 자동화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다. 작업자가 기계 위에 제품을 올리면 기존 매뉴얼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자동 폴딩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 반복업무를 대신할 컴퓨터, 알봇을 도입했으며, 외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에도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챗봇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세실업은 올해 매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매출 2조 클럽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물류 사업 접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퀀텀점프를 이뤄내고 한세 2.0을 맞이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1982년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이 설립한 글로벌 패션 전문기업으로 2009년 한세에스24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설립하며 인적분할됐다. 한세실업은 전 세계 9개국에서 20개 법인 및 9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5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세실업의 수출 물량은 한 해 4억 장에 달한다. 겹(GAP), H&M, 아메리칸이글 등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미국 대형 유통 업체인 ‘월마트나 ‘타겟’의 자체상표(PB) 상품도 생산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자회사 ‘칼라엔터치’를 설립해 원단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베트남에 C&T VINA와 C&T G-TECH 생산 법인을 두고 있다.



Passion
for Fashion
World wide

한세실업이 어느덧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인간에게 40해도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만, 기업의 역사가 40년이라니.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지... 가능해보면 어느덧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40세를 흔히 '불혹(不惑)'이라 말합니다. 세상 이런저런 일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고, 비교적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40년 정도의 내공이면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와도 개척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까요? 어느덧 크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40살 한 세가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미래가 참 궁금합니다.

그 역사의 일등공신.. 한세의 직원들이 직접 나서 40살 생일파티를 살들히 챙겨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날의 현장을 한 번 이모저모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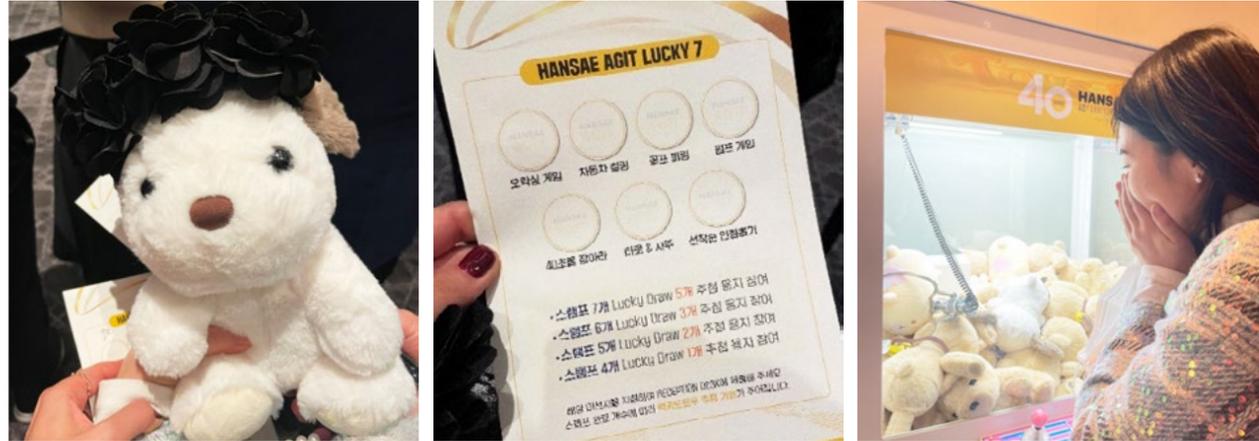


〈한세실업 40주년 행사 초대장〉



때는 12월 1일 목요일 저녁 6시! 이날 그랜드하얏트서울에는 블링블링 베스트 드레서를 노리는 블링블링 한세 식구들로 발 디딜틈 없고, 어느 곳에도 눈을 뒤흠지 할 지 모를만큼 화려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약 600명 가까이 된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행사장은 이미 3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는데요.

오락실게임, 자동차컬링, 골프 퍼팅, 펌프 게임, 40초를 잡아라, 타로&사주, 선착순 인형뽑기 등 본식 시작 전까지 지루할 틈 없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타로&사주 나 인형뽑기 등의 일부 이벤트들은 웨이팅만 거의 1시간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



〈행사장 내 마련된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한세실업 직원〉



〈건배제의하는 김익환 부회장과 한세실업 임직원들〉

보통 회사대표의 축사라고 하면, 장황하고 지루한 편(?)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역시 센스남치는 부회장님의 축사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너무나 유쾌했습니다. 게다가 한세 40주년 그간의 공을 모두 임직원들에게 돌리며, 진심으로 직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부회장님 축사 모먼트에서 잠시, 아주 잠시 코끝이 찡해진 건 안(?) 비밀!!



〈임직원 앞에서 스피치중인 한세실업 김익환 부회장〉



〈축하공연중인 가수 '울랄라세션'〉

울랄라세션의 축하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40년을 이어온 한세인의 텐션은 어디가도 절대 뒤편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한세 40주년을 축하해 주고, 앞으로의 미래를 치열업하며 공연해 주신 울랄라세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주최측이 준비한 "인생네컷" 촬영에도 진심인 한세인들 : D〉

그 외에도 럭키드로우를 통해 마련된 푸짐한 선물과 고생한 임직원들을 위해 준비된 기념품 등 귀가길이 허전하지 않게 모두들 양손 무겁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지루할 틈 하나없는 정말 알차게 준비된 40주년 행사였습니다. 그날의 에너지와 기운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한세인들께 오랫동안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애사심 뽐낼만한 한세인들, 2023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50년, 100년까지 앞으로 쭉~욱 Cheer up!!



INSTAGRAM



WWW.NBASTYLE.CO.KR | [fb](#) nbastyle [ig](#) @nbastyle_kor



ONLINE MALL



INSTAGRAM



WWW.NBASTYLE.CO.KR | [fb](#) nbastyle [ig](#) @nbastyle_kor



ONLINE MALL

한세:인, 오늘도 출근

6개월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25일 신입사원들의 풋풋하고 설레는 회사생활과, 후배들을 위한 꿀팁! 그리고 MZ세대들의 사무실 필수템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세실업 경영지원 부서의 이광원 선임님과 C&T 류혜진 선임님!



한세실업 공채 34기 인터뷰 2인

Q1_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두 분 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차! 4월 25일로 입사한 회계-자금 소팀 이광원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34차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칼라엔터치 경영 지원 막내 류혜진 선임입니다. 대학교는 회계학과 국제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6개월의 인턴기간을 갖 마치고 어제 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보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Q2_해외파견 전 6개월간 근무했던, 소속팀에서의 이야기를해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근무했던 팀은 '역시 뽀빠의 꽃'이라던지..? 등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팀은 회계 - 자금소팀입니다 회계 - 자금소팀은 한세실업에 원화 출금 및 입금을 담당하고 있는 팀으로 꼼꼼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팀입니다. 또한, 팀 특

성 상 유관부서에게 증빙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입금 상황에는 유관부서에 증빙을 전달해주는 부서로, 다른 팀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 팀입니다. 꼼꼼함과 소통능력이 필요한 한세실업에 멀티 플레이어 회계 - 자금 소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은 경영지원팀입니다. 회사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 관리와 더불어 동료들의 최적의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와 동료들의 '든든한 조력자'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Q3_두 분 모두 곧 베트남 근무를 위해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타지에서 긴 시간 사는 적은 처음이라서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데요,

부족했지만 잘 이겨내고 성장했던 인턴 생활처럼 해외 근무역시 잘 이겨낼 거라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환경에 놓여진 저의 모습이 궁금하면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전적자예정 교육 및 베트남어 수업을 제공하여 파견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CNT로 파견 갔다 오신 선배님들이 진솔한 경험담 공유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4_6개월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그때의 모습과, 6개월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달라진 점이 있고, 변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요?

 처음 입사하고 복사기 연결하는 법, 사용하는 법도 몰라서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첫 출근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혼자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노력해서 해결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더 큰일이 터지기 전에 질문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6개월 전에는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어리숙하게 전화받고, 보고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보다는 능숙해졌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변수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일주일 중 금요일이 가장 좋아요 (웃음)

Q5_신입사원이기에 용서 가능한 귀여운 실수, 혹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공유해주세요.

 메일을 쓰거나 팀즈를 쓸 때 호칭이 익숙 하지 않아서 책임님을 선임님, 책임님을 수석님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사소하지만 아찔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지원팀은 아무래도 유관부서와 교류가 잦은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초반에 성함을 잘못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다행히 너그럽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초적인 실수를 없애기 위해 입사 초반에 한세실업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팀별, 부서별 직원들의 사진을 보고 성함을 익히고자 노력했습니다.

Q6_MBTI는 뭐예요? 실제 회사생활을 해보니 본인의 MBTI가 갖고 있는 특성과 맞는 것 같나요?

 저는 ENFP 입니다. ENFP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과 여러 가지 많은 곳에 흥미를 가지는 특성에서 많은 유관기 관 분들과 소통해야 하는 회계팀과도 잘 맞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INTP '논리적인 사색가'입니다. 천성이 이라 회사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나 어려움 없이 짧은 기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 지원팀에서 숫자를 다루는 업무가 제 성향과 잘 맞다고 생각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Q7_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특별히 배치받고 싶은 부서가 있다면? 그 이유는요?

 저는 회계 - 결산팀으로 배치 받고 싶습니다 해외근무를 통해서 많은 회계적 지식을 결산팀에서 돌아가서 녹이고 싶습니다. 입사 초기의 목표였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회사의 재무적 상태를 공시하기'를 꼭 해 보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배치 받고 싶은 부서는 현재 소속된 경영지원팀입니다. CNT 파견에서 배우게 될 관리회계와 결산 경험을 살려 칼라엔터치의 중장기 재무 관리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Q8_MZ세대들의 회사생활은 이전과 많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직접 겪어보니 어떠신가요? 학생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생활과 현실의 사회생활, 많이 다른가요? 생각보다, 혹은 학교생활보다 오히려 재밌고 유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ㅎㅎ)



이광원선임
들어오기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회사에 선입견이 생겼던 거 같은데 생각보다 회사는 그렇게 딱딱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특히 한세는 동기가 많아서 더 마음 의지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혜진선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준 사회생활은 수직적이고 딱딱한 느낌이라면 실제로 경험해 본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에 발맞춰 회사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9_ 평소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지면을 빌려 이야기 해볼까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 혹은 조금 섭섭했던 순간 (당연히 대상은 밝히지 않기로) 등 자유롭게 이야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광원선임 필수 아이템!

				
스마트워치	블루라이트 차단안경	USB허브	제첩기	탁상 달력
알람기능을 활용하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시력 저하와 안구건조증 방지 가능!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노트북에 많은 usb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수	문서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는 제첩기는 인턴에게 필수템	보통 루틴적인 일이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업무는 꼭꼭 달력에 기재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류혜진선임
법적인걸을 앞두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 표현이나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너무 감사 감사! 많은 것을 배워 갑니다. 쪽 좋은 인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님!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며 업무가 막히거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편하게 질문하라는 말씀이 업무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CNT에 파견 나가도 잊지 말아 주시고, 가셔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전환식 때 서프라이즈로 작성해 주신 롤링페이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Q10_ 곧 입사 예정인 다음 기수 후배들에게도 따뜻한 한마디씩 전해주세요!

이광원선임
처음 시작할 때 회사에 대한 막연한 무서움이 있었지만, 일하고 경험해보면 많은 것을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세실업에는 너무 좋은 분들도 많고 동기들도 많아서 힘든 점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류혜진선임
먼저 한세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처음은 늘 새롭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세실업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하신 열정만 있으시다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해외파견을 떠나는 이광원 선임님과 류혜진 선임님에게 동기들이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었는데, 동기가 많아 마음 의지할 곳이 많았던 선임님의 말처럼 오래오래 서로 응원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류혜진선임 필수 아이템!

				
갤럭시탭	무선 마우스	매경 이코노미	계산기	목 마사지기
프로페셔널한 일정 관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	마우스를 자주 잡는 직장인을 위한 손목 보호	출퇴근길 시사 상식을 더해요	회계 업무의 필수템! 검토 검토 또 검토	거북목 예방

동기들의 한마디!

수출 1C7팀 권한성 선임 사랑하는 동기 광원, 혜진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이었지만, 그동안 정이 많이 든 것 같아. 지난주에 송별회 할 때만 해도 별로 실감이 안났는데 당장 코앞에 다가오니 뭔가 아쉽고 보내기 싫은 마음이 밀려오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근무 잘 하고 돌아올거라 믿기에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수출 5A본부 3부 2팀 배운호 선임 등직한 광원이 형, 혜진 누나, 6개월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파견을 나간다고 하니 많이 아쉬웠어. 인턴 기간 동안 많은 성장을 한 것처럼, 해외 근무하면서 더 많은 성장을 하길 바랄게! 가기 전에 꼭 동기들끼리 한 번 더 모여서 회식하자!

수출 1C7팀 박희진 선임 광원이, 혜진언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네, 모두 조심히 다녀와. 아직 우리에게도 해외파견 가는 동기가 낯설어서 실감이 안난다. 가서 많이 배우고 재밌게 다녀와. 내가 모두가 돌아오기 전까지 회사 잘 지키고 있을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한국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술 한 잔 하자~



“자유로운 기업문화 다이나믹 한세의 힘”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세실업. 노동집약 산업의 한계를 넘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새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넘치는 한세실업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업계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시스템(HAMS, 햄스)을 도입해 업무 환경을 개선했다. IT기술을 도입해 생산에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햄스는 제품생산과정의 모든 흐름을 데이터로 만들어 전 공장의 가동 및 생산 현황을 별도의 개인정보단말기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햄스, 알봇, 챗봇, 팀즈 등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친환경 경영 실천과 함께 한세실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고민도 직원들과 함께 나눈다. 김익환 부회장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Q 노동집약산업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적극 접목했다. 결과가 궁금하다.

수년에 걸쳐 개발하고 도입한 한세실업만의 시스템을 HAMS(Hanse Advanced Management System)라고 부른다. 햄스는 제품생산 과정의 모든 흐름을 데이터화한다. 이 시스템으로 본사는 실시간 전 세계 모든 공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바이어, 시장상황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생산 법인들의 공장 현황도 예측할 수 있다. 덕분에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내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비효율 처리하는 IT 시스템 접목
친환경 경영에 대한 고민도 깊어

Q 친환경 경영 실천, 특히나 패션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 한세실업은 친환경 원단을 구매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10% For Good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NGO를 돕는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고 우리 산업에서의 폐기물을 재활용, 재생산해 순환시키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했다.

특히 2021년에 물리적인 섬유 재생업체인 리커버(Recover), 화학적 섬유 재생업체인 에버뉴(Evnu)에 투자를 진행했다. 한세가 생산한 완제품들이 다시 수거되어 분해되고, 한세가 투자한 업체들이 재활용한 원사 원단으로 다시 완제품이 되는, 섬유산업 내 순환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해외 공장에 다양한 친환경 의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한 빗물 저장 시스템, 에어컨 대신 작업장 내 온도를 조절하는 워터 쿨링 시스템 등으로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Q 전 세계 의류벤더 최초로 VD(Virtual Design) 전담 팀도 설립했다. 친환경 경영과 어떤 연관이 있나?

2017년부터 자체 3D 디자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샘플을 제작해 불필요한 샘플 원단의 폐기물과 샘플 전달 시 소요되는 포장재, 운송 연료 등을 줄이며 비용 절감 효과와 환경 보호 효과를 얻고 있다. 한세실업의 가상 샘플은 현물 원단의 특성과 질감, 무늬, 컬러까지 그대로 표현해 실물 샘플만큼 정교한 구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3D 기술 노하우로 3D 샘플의 완성도 및 전문성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한세실업의 디자이너 전 직원이 3D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5년까지 실물 샘플의 80% 이상을 3D로 대체할 예정이다.

여성 임직원 비율 업계 평균 이상
한세실업 P&C팀 꾸러 복지 향상

Q 업계에서 '양성평등 우수 기업' '복지가 좋은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특히 신경 쓰는 복지 시스템이 있다면?

우선 한세실업은 유연한 기업문화로 성별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직무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 양성평등 우수 기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5월 기준 전자 여성 근로자 비율이 71%이며,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중은 56%로 2년만에 3% 증가했다. 한국 본사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58%이며, 베트남 법인, 인도네시아 법인, 미얀마 법인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각각 65%, 60%, 80%이다.

아울러 좋은 인재들을 확보해 이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고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항상 고민한다.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워킹맘을 위한 최고 수준의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한세실업의 자량 중 P&C(People&Culture) 팀이 있다. 2019년에 신설했는데, 구성원 의견 청취, 사내 캠페인 등 각종 조직문화 활성화 활동

과 함께 사내 교육을 담당하며, 밝고 긍정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한다. 조직문화 개선점, 아이디어 등을 경영진에게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피플이' 프로젝트, 타운홀 미팅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2분기 최대 실적 달성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 가능 회사

Q 2분기 실적까지 청신호를 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원재료 및 물류비 상승 등의 악재를 딛고 수익성 높은 계약을 집중 수주한 점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바이어 확보를 비롯해 기존 바이어와의 신규 스타일 계약도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해당 분기 평균 환율이 상승한 것도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12.3% 상승해 수주 금액의 원화 환산 효과가 더해졌다. 앞으로도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를 시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원단 생산가공 자회사인 C&T VINA 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하여 2개 공장을 가동 중인데 추가로 제3공장을 신설하고 중미 과테말라에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장 추가 설립을 통해 의류 생산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가공하는 역량도 극대화할 전략이다. 특히 과테말라에는 관련 유관 산업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불필요한 물류 이동 과정과 비용 및 소요 시간 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Q 한세실업의 앞으로의 비전이 궁금하다.

그간 의류 생산과 원단 생산을 연결해 우리 산업내 수직적인 분위기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더 확장된 한세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다. 팬데믹과 락다운을 겪으면서 모든 기업들이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트렌디한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의류 회사지만 IT 회사처럼 젊고, 활기 넘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의류 제조업이라고 하면 자칫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젊고 트렌디한 기업으로 쇠신해 나갈 예정이다.



창립 40주년 매출 2조 진입 '한세 2.0' 지휘



일러스트: 김연호

1976년생/ 고려대/ 미국 조지워싱턴대 MBA/ 2009년 한세실업 R&D 부사장/ 2017년 한세실업 대표이사부사장/ 2020년 한세실업 부회장(현)



전 세계 9개국 20개 법인에 9개 사무소 운영. 직원 수만 전 세계 5만여 명 한 해 옷 4억 장 수출. 한세실업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수치다.

한세실업은 최근 실적 발표로 더욱 주목받았다. 3분기 매출액만 588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내실도 탄탄하다. 3분기 영업이익 655억 원. 제조업계에서 보기 드문 두자릿 수 영업이익율, 무려 11.1%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여파로 179억 원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

세를 몰아 한세실업의 올해 전체 매출액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마침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 매출 2조 원 클럽 진입은 회사 입장에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수익성 좋은 고가 의류 브랜드와 계약이 늘어나다 보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대부분 장기 계약인 만큼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리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도 "올해 3분기 평균 판매단가가 8.6달러로 2021년 7.2달러, 2020년 5.6달러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고단가 제품 수주 증가가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세실업은 1982년 김동녕 한세 예스24홀딩스 회장이 설립했다. 갬, H&M, 아메리칸이글 등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옷을 디자인 기획 제안, 생산, 납품하는 업계 전통의 강호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월마트와 '타겟'의 자체 상표(PB) 상품도 생산, 수출한다.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온라인 서점 1위 예스24, 2014년 교육 콘텐츠 기업 동아출판 등을 인수하며 문화콘텐츠 분야에 진출했다. 2009년에는 한세예스24홀딩스를 지주사로 설립하며 한세실업이 인적분할돼 지금에 이른다.

현재 한세실업을 이끌고 있는 이는 김동녕 회장 차남인 김익환 부회장(46)이다. 김 부회장은 고려대 졸업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MBA를 이수했다. 2004년부터 한세실업에서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그가 입사 후 특히 공을 들인 부문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경영이다. HAMS(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가 대표작. HAMS는 한세실업만의 스마트 시스템으로 제품 생산 과정의 모든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사에서 전 세계 모든 공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해 고객사인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신뢰를 단번에 얻었다는 후문이다. HAMS는 자체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온 시점, 김 부회장은 HAMS를 통해 북미와 인접한 중미 지역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식의 물류비 절감 방안을 도출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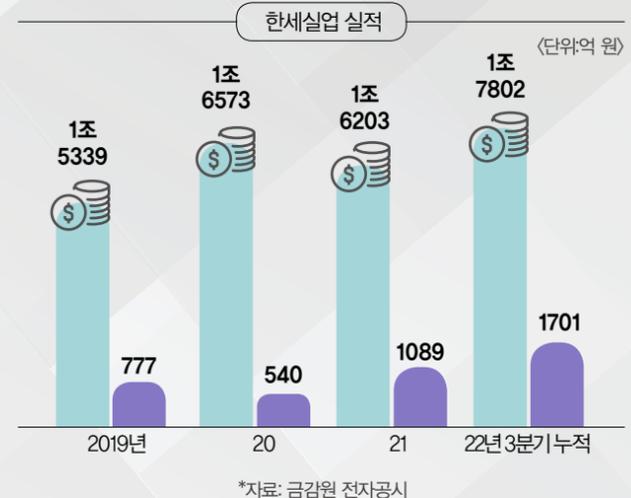
친환경·ESG 경영에도 앞장섰다. 2017년 김 부회장은 일찌감치 3D 기반 가상 샘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샘플 제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 부회장은 "현물 원단의 텍스처(질감), 패턴(무늬), 컬러감까지 그대로 표현해 실물 샘플만큼 정교한 구현이 가능한 한세실업만의 3D 기술은 바이어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R&D센터에 지속 투자하고 가상 모델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세실업은 2025년까지 실물 샘플의 80% 이상을 3D로 대체할 계획이다.

생산 현장에도 ESG 경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한 빗물 저장 시스템, 에어컨 대신 작업장 내 온도를 조절하는 '워터 쿨링 시스템 등 2019년부터 해외 공장에 다양한 친환경 의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전인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물 사용량 8000만ℓ 이상, 유류 사용량 14만ℓ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20% 이상 감축, 석탄 사용량 100% 절감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재활용 섬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리커버'와도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정 구축에도 많은 힘을 쏟아왔다. 사이즈 라벨 부착, 폴리백 작업, 가먼트 폴딩 등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오랜 기간 관찰해 온 그는 생산 공정을 최대한 쪼개서 자동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냈다. 자동 폴딩기 개발 과정이 주요한 사례 중 하나다.



HAMS 직접 만들고 현장 적용 창립 40주년 맞아 '한세2.0' 선언 김익환 부회장 ESG 경영 발군 자동 폴딩기 등 스마트 공정 앞장 리오프닝 수혜 넘어 다각화속제

작업자가 기계 위에 제품을 올리면 기존 매뉴얼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자동 폴딩기다. 김 부회장은 현장 근로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스마트 공장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 끝에 한세실업만의 스마트 공정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임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할 컴퓨터, 소위 '알봇'을 도입했다. 외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챗봇 시스템도 활용한다.

경기 침체 파고... 품목 다변화로 뚫겠다

한세실업의 고성장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올해 실적은 리오프닝, 즉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야외활동과 사업 재개 등의 호재가 동시에 작용 한 결과일 수 있다. 일종의 저저 효과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 동향이 예시롭지 않다. 미국 연준은 내년에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과 같은 패션업계에 우호적인 환경도 한계를 보일 우려가 있다. 리오프닝 특수 이후 외출복이 많이 팔린 건 사실이다. 실내복보다 외출복이 대체적으로 단가가 높다 보니 한세실업 역시 올해까지는 빼어난 실적을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하면 전 세계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거나 새 옷을 사는 빈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조가 나타나면 고객사인 패션 업체 입장에서 내년 생산량을 조절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어려움에도 김 부회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디지털 기반 공급망 구축, 생산 공장의 수직 계열화 완성, 사업 카테고리 확장의 선순환 사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업 문화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한세 '2.0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 부회장이 주창하는 주요 전략은 품목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수직 계열화로 요약된다. 외부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루리 애널 리스트는 "한세실업이 스포츠아웃 도어를 추가한 품목 다변화에 기반한 질적 성장, 미안마 신규 공장 가동과 과테말라 원단 수직 계열화 투자 등 생산설비 증설을 통한 양적 성장이 모두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한세실업 40년 “최고품질 옷 제공” 5대 비전 제시



임직원 600여 명과 기념식 가저

글로벌 패션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세실업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최고 품질의 의류 제공을 다짐하고 나섰다.

김익환(사진) 한세실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최고 품질의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의 패션 문화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선택을 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 정진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품질의 옷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한세실업을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세실업은 이날 △뛰어난 디자인과 좋은 품질의 옷을 만들어내는 것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시대 흐름에 앞서 나가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 △업계 최고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리더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것 △최고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내는 것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회사로 만들어 가는 것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한세실업은 지난 1982년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이 설립했다. 김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말 감사하다. 한세의 50년, 100년을 부탁한다”며 성과와 노고를 위로했다.

대세는 친환경 한세실업 “지속가능패션” DNA 심는다



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공급, 수출하고 있다.

해외 생산공장은 친환경 의류 생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빗물 재활용을 위한 빗물 저장 시스템과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워터 쿨링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 섬유 재활용 기술력을 보유한 스페인 리커버 텍스타일 시스템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베트남 사업장에 대규모 재생원사원단 제조 설비 투자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화석연료 사용 50%, 탄소 배출 25%, 물 사용 20%, 전력 사용 5% 감축 목표도 세웠다. 2026년까지 약 3억불(한화 약 4250억 원)을 투자해 과테말라 미차토야 지역 등에 친환경 방적편직염색 생산 설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전개한다.

한세실업(105630)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류 생산 시스템 구축에 공들이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물·전력 사용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중장기 목표 이행에도 나설 방침이다.

‘환경 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패션 산업 전반에 ESG 경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세실업은 VD(Virtual Design)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3D 디자인 기술을 토대로 현물 원단 특성과 질감 등을 정교하게 구현한 가상 샘플을 제작해 샘플 원단 폐기물과 제반 포장재, 운송 연료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실물 샘플 80% 이상을 3D 샘플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실제 한세실업 디자이너 전 직원이 3D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협력 브랜드사에는 버추얼 쇼룸(Virtual showroom) 및 3D 패션쇼, 사이버 카탈로그(Cyber catalogue)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세실업은 베트남,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9개국에 20개 법인 7개 사무소를 두고 해외 사업을 전개 중이다. H&M, GAP(갭) 등 주요 고객사

한세실업이 친환경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패션 산업을 둘러싼 환경문제 해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패션 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연간 약 120억 톤(t) 규모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1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한세실업은 의류 제조 ESG 경영에 필요한 기술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연구 및 실행해왔다”며 “다양한 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모델과 생태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세에스24홀딩스,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ESG 보고서' 첫 발간

첫 ESG 보고서 발간...“지속가능경영 정보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통”
‘폐기물 절감’, ‘사회공헌 강화’ 등 ESG 핵심 이슈 중심으로 2021년 성과와 2022년 목표 소개



[한세에스24홀딩스 2022 ESG 보고서/사진 제공=한세에스24홀딩스]

한세에스24홀딩스(대표 김동녕, 김석환)가 첫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에 걸쳐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 온 한세에스24홀딩스는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Report, 2022'를 선보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세에스24그룹의 ESG 경영 추진체계, 지속가능경영전략 등과 함께 2021년 주요 ESG 활동 결과가 공개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폐기물 절감을 통한 순환경제 기여 ▲사회공헌활동 강화 ▲불공정 행위 방지 등 4가지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의 주요 성과가 정리되었으며, 2022년 목표 및 계획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세실업의 2021년 친환경 원단 구매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해외 봉제공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722톤 절감했다. 올해에는 미얀마, 니카라과 등 신설 공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확대하고 '10% FOR GOOD' 캠페인 규모도 키울 예정이다. 한세엠케이는 지

속적인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한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NGO 단체와 함께하는 의류 후원 프로젝트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세에스24그룹은 윤리 준법경영 관련 교육 강화 및 ESG 관련 전문 위원회 신설도 예고했다.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창사 이래 지켜온 정도경영의 신념으로 사회 번영의 일익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세에스24홀딩스는 2009년 한세실업의 인적분할로 사업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됐다. 의류 ODM 부문의 한세실업과 브랜드 리테일 부문의 한세엠케이, 출판/문화 부문의 예스24, 동아출판 등 자회사를 두고 전 세계 패션과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다. 'ESG Report, 2022'는 한세에스24홀딩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세실업, 혁신적 ESG 경영 리딩... “지속 가능한 패션 이끈다”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가 주 소비를 이끌면서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는 글로벌 패션 ODM 기업 한세실업(대표 김익환, 조희선)은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며 주목받고 있다. 한세실업의 친환경 경영은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에 앞서 있으면서 환경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 활동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진일보한 친환경 시스템 구축 '생산설비의 스마트화로 일군 자원 낭비 없는 공정'

한세실업 해외 법인 공장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의류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한 빗물저장시스템, 에어컨 대신 작업장 내 온도를 조절하는 워터쿨링시스템, 물 사용 절감 염색세탁기 등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시스템 구축 전인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물 사용량 13만 리터 이상, 유류 사용량 35만L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2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석탄 사용량은 100% 절감했다. 또, 한세실업 자회사인 염색 공장 C&T VINA는 자체 폐수 정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해 원단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재사용하고 있다.

혁신으로 이끄는 3D 가상 샘플 제작 '원단 폐기를 줄고 전 세계가 기다림 없이 확인'

글로벌 패션 ODM 회사 중 가장 빠른 2017년부터 한세실업은 자체 3D 디자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샘플을 제작해 불필요한 샘플 원단의 폐기물과 샘플 전달 시 소요되는 포장재, 운송 연료 등을 줄이며 환경 보호 효과와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전 세계 의류벤더 최초로 VD(Virtual Design)전담팀을 설립해 운영 중인 한세실업의 가상 샘플은 현물 원단의 특성과 텍스처(질감), 패턴(무늬), 컬러감까지 그대로 표현해 실물 샘플만큼 정교한 구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3D 기술 노하우로 3D 샘플의 완성도 및 전문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5년까지 실물 샘플의 80% 이상을 3D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한세실업은 친환경 원단 구매 규모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재활용 섬유부터 친환경 원부자재까지 고객사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가장 혁신적인 친환경 의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한세실업의

친환경 원단 구매량은 2018년 약 3천만 야드에서 2021년 1억 5천만 야드로 크게 증가했다.

행동하는 양심이 이끄는 친환경 캠페인 '10% For Good 캠페인 및 페이퍼리스 캠페인 전개'

한세실업은 2019년부터 친환경 정책과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한 10% For Good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세실업의 친환경 원단으로 바이어들이 친환경 의류를 제조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의 10%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다. 환경운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양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네덜란드 비영리재단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에, 2020년에는 해양폐기물 수거 단체인 'WFO(Waste Free Oceans)'와 '플라스틱뱅크(Plastic Bank)'에 기부했다. 2021년에는 고품질의 재활용 섬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리커버 텍스타일 시스템(Recover Textile Systems, S.L.(Recover™))'과 미국의 혁신적인 섬유 기술 스타트업 '에버뉴(Evrnu)'에 투자했으며,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섬유산업 내 친환경 순환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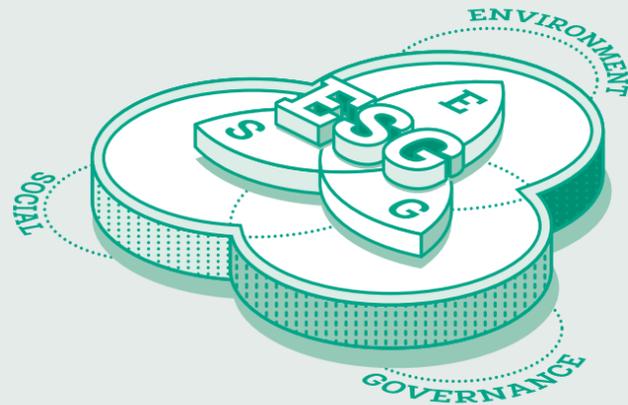
본사에서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캠페인을 통해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다양한 IT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인쇄물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본사의 복사 용지 구매 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세실업은 해양폐기물 수거 단체인 'WFO(Waste Free Oceans)'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펼쳐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다.>



한세실업,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윤리경영 · 주주친화경영 이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세실업의 성장 속도,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큰 몫

베트남, 니카라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아이티, 미국 등에 해외법인과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세실업은 본사, 본 공장, 외주 공장의 모든 임직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중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부정부패 방지' 프로그램이 꼽히며, 이는 현지어와 영어로 모든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늘 부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가들의 노동법과 환경법 등 현지법과 바이어의 규정을 반영한 행동강령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한세실업은 분쟁 영향이 높은 지역의 광물을 공급받아 무장 단체들의 운영 자금으로 쓰이지 않게 제정된 Dodd-프랭크법(Dodd-Frank Act)의 1502항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분쟁광물정책'도 수립해 준수하고 있다. 한세실업의 공급업체는 분쟁 광물을 구매하지 않는 분쟁 자유 업체로 인권과 윤리, 환경적 책임을 존중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세실업은 외주공장 및 협력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들이 윤리실천 서약서에 서약하며 윤리 경영 교육 등의 활동을 지속해, 윤리 경영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강제한다.

건전한 혁신을 추구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는 이사회

글로벌 패션 ODM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한세실업은 ESG 경영에도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태도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세실업의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이사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회사의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업무 진행을 감독·감시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무가 아님에도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3인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으며, 감사위원 중 1인의 경우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선임해 관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빠른 시일 내 이를 도입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주 권익 보호는 물론 투명하게 공개되는 주주친화경영

지난 3월 도입한 정기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는 한세실업 주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카오페이 인증 등을 통해 간편하게 주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 시 일시와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2주 전까지 통지해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 기업의 가치 제고가 주주 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배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정책에도 적극적이다.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성향 10% 이상 유지하고 있다.

IR뉴스

한세에스24홀딩스, 지난 10월 온라인 글로벌 기업설명회(IR) 개최

지난 10월 27일 오전 10시, 한세에스24홀딩스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송출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대상...한세 그룹 예상 실적 및 성장 전략 발표



한세에스24홀딩스(대표 김동녕, 김석환)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10시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글로벌 기업설명회(IR)를 실시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세에스24홀딩스의 온라인 기업설명회는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에는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김지원 한세에스24홀딩스 대표 등 각 기업 대표가 실적 및 비전 발표 등을 진행했다.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은 “한세 그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내외 투자자분들과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는 한세실

업의 최대 실적 달성, 한세에스24와 합병 등으로 그룹사 전반에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파트너십 체결, 신규 사업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이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한세에스24홀딩스는 2009년 한세실업의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됐다. 의류 ODM 부문의 한세실업과 원단 부문의 칼라앤터치, 브랜드 리테일 부문의 한세에스24와 출판/문화 콘텐츠 부문의 에스24와 동아출판 등을 자회사로 두며 전 세계 패션과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춘은 죄가 없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매년 11월에 들어서면 조용히 캐롤을 들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할 마음가짐을 합니다. 거창한 준비는 아니지만, 연말연시에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미리 연말로 가져다 놓는(?) 정도입니다.

분위기는 주변으로부터 하나둘씩 만들어집니다. 각 지역 랜드마크에 트리와 장신구들이 설치됩니다. 동네 교회와 성당을 기점으로 화려한 조명이 달리기 시작하고, 스타벅스는 프리퀀시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연말". 이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특유의 연말 분위기는 추억을 쌓기에 완벽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연말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 '할로윈'으로부터 그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동양 고유의 문화는 아니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급속히 할로윈 문화가 퍼져나갔고, 올해는 특히 워드코로나와 야외 노마스크로 조금 더 들떠 있었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는 covid-19로 억눌렸던 분위기에서의 해방감, 또 누군가는 시험을 끝내고 만끽하고 싶었던 여유, 혹은 갓 성인이 되어 누리보고자 했던 생애 첫 축제 등... 다양한 심정들이 있었을테니까요.

평소보다는 긴장감을 좀 풀어도, 각자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하루로 많은 것이 'That's ok'일 것 같은 그 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비보를 접했을 때의 착잡한 심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춘은 죄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고, 또 친구였던 그들은 그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쌓으려 발걸음을 떼죠. 코로나로 인해 활기를 잃었던 이태원 상권의 부활을 기대하며 언론에서 조차 할로윈 행사를 앞다퉈 소개했으니까요.

2022년의 연말은 예년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슬프게도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사고로 소중한 생을 마감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마음에서... 소중한 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관객 필독서

The Musical



2000년 창간한 국내 유일의 뮤지컬 전문 매거진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 예스24 검색창에 '더뮤지컬 정기 구독권'을 검색하세요

정기 구독시 독자 여러분 취향대로 가격 할인 또는 스페셜 굿즈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택배 배송으로 '더뮤지컬'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Musical BASIC	베이직 정기 구독권 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	The Musical WEL COME	웹컴 정기 구독권 구독 첫 달 스페셜 굿즈 증정
	6개월 51,000원 (정가 6만원, 15% 할인)		6개월 60,000원 (예코백 증정)
	1년 96,000원 (정가 12만원, 20% 할인)		1년 120,000원 (티켓북 증정)



아트 슈머,

예술과 함께 즐기는 연말연시

많은 이들이 행복을 만끽하길 원하는 연말연시, 최소한 연말연시만큼은 행복하리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와 설날이지만, 지인과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풍경을 떠올리곤 한다. 사실 지나고 나면 그저 평범한 하루인데 말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상과 문화가 되어버린 홈 파티를 준비하는 일명 홈파티족은 연말연시를 맞아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들 중 새로운 미술 향유층으로 떠오른 MZ 세대이자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문화적 만족감을 충족하며 미술품 소비를 아끼지 않는 '아트 슈머(ART+Consumer)'는 자신의 취향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미술품 컬렉팅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챙기고 있다. 필자는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 미술 작품이 기존의 미술 유통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테리어 용도의 미술 작품 시장 확대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미술 작품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쉬워져 예술 대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다 갤러리와 어반 아일랜드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는 고대표는 얼떨결에 구매한 작품 한 점을 계기로 미술의 매력에 푹땃 빠지게 되어 열혈 수집가가 되었다며, 어느 매거진 인터뷰에 밝힌 바 있다.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미술 애호가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연말연시, 그 어려운 처음을 마음 편하게 이끌어줄법한 두 명의 작가를 소개한다.



'미드 나잇 러브'전 전경



고려명 작가



고려명 Koh ryeo myoung, 2개의 바늘 baneul 2 61x50cm, 2022, 캔버스에 유화, 붉은 염료 Canvas on lipstick

고려명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스페이스 사진 전문학교 측에서 권유를 받아 정규 코스를 수료 후, 2009년 졸업했다. 사진에 처음 입문한 동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취미로 사진을 찍던 그리운 기억에서부터였다. 고려명은 부품을 직접 조립하여 만든 아날로그 대형 카메라에 우주를 관측할 때 사용되는 초정밀 관측용 필름으로 촬영하며 독보적인 사진 작업을 이어나갔다. 고려명은 예술의 처음 시작을 사진으로 시작했을 뿐, 본인은 작가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고려명은 사진작가로 국한되기보다는 현대미술가인 것이다.

고려명의 첫 페인팅 작품은 바늘로 상처와 치유를 표현하는 작업이다. 작가는 아픔의 근원인 상처를 개인에 따라 부족한 약점이거나 마음의 두려운 틈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 인간관계 나아가 행복과 사랑이 가능하다고 바라본다. 고려명은 상처를 낼 수 있는 수많은 소재들 중에 바늘을 그린다. 그 이유는 바늘은 상처를 내지만 그 동시에 찢기거나 구멍이 난 것을 꿰매어 줄 수 있는 치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전 작업처럼 바늘이라는 사물의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하고, 바늘만의 존재감을 부각해 붉은 염료로 표현해 기존 작품과는 색다른 질감을 자아낸다.

배우 겸 화가 이태성은 액팅과 페인팅을 오가며 창작이라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100여 회가 넘는 붓질을 통해 물성과 물성이 달으면 변화되고 유착과 고착을 반복하며 우연성이 강조되는 작업을 한다. 서로 다른 색들이 뒤섞이고 중첩되는 터치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나아가며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감정을 시사한다. 이태성의 노동집약적 회화는 작가의 시간과 행위, 그리고 진정성을 표현하는 과정인데, 작가의 호흡과 결의 터치가 화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지금은 과거의 수없이 많은 순간이 중첩되는 순간이다. 이태성의 그림 그리는 행위는 화폭 안에 존재하는 작가의 태도, 작가만의 색감과 질감, 작가의 표정을 부여한 작가의 자화상이다.



이태성 작가



필자인 최고운은 권진규 미술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등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의 정체성 재조명을 전시기획하며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했고, 박여숙화랑, (재)한원미술관, 종이나라박물관, 학교재 등에서 재직했다.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목표로 전시기획, 방송, 강의, 칼럼, 평론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칼럼니스트, 미술평론가 겸 피카프로젝트 수석 큐레이터이다.



공기처럼 가벼운 솿 다운 패딩으로 올 겨울 '힙스터' 완성..경쾌함&활동성 UP!

NBA, 트렌디한 '코트 에어 다운 라인업' 선보

NBA, 공기처럼 가벼운 '코트 에어 다운 라인' 출시.. NBA만의 감성 담은 솿패딩으로 겨울 스타일링 제안
짧은 기장으로 활동성 ↑.. 트렌디하면서도 스타일 살린 디자인으로 'GEN-Z' 세대 취향 저격
다양한 스타일 선보인 'NBA 코트 에어 다운', 투웨이(2-Way) 스타일의 'NBA 에어 코트 멀티 다운' 등



COAT AIR MULTI- DOWN

'NBA 코트 에어 멀티 다운' 화보컷

국내 대표 한세엠케이(각자 대표 김동녕, 김지원, 임동환)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가 경량성과 트렌디함을 모두 갖춘 '코트 에어 다운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며 겨울 시즌 공략에 나섰다.

예년보다 빠르게 추워진 날씨로 인해 겨울 아우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패션업계 역시 다양한 디자인의 패딩을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도 지속되는 'Y2K' 트렌드 속 경쾌한 느낌을 강조한 '솿패딩' 제품이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솿패딩은 길이가 짧아 활동성을 살리는 동시에 다양한 뉴트로 감성의 겨울룩을 연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NBA는 마치 공기를 입은 듯한 가벼운 무게감과 짧은 기장으로 활동성을 높인 '코트 에어 다운' 2종을 출시했다. NBA 특유의 스포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특징인 다운 점퍼는 미국 NBA 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셀럽의 모습을 재현한 화보 비주얼과 더불어 출시 직후 트렌디한 겨울 아이템을 찾는 '젠지(GEN-Z)' 세대의 취향을 저격,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먼저, 공기처럼 가벼운 경량감과 보온성이 특징인 'NBA 코트 에어 다운'은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돼 겨울철 데일리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블랙, 아이보

리, 라이트블루 등 심플한 솔리드 컬러부터 패셔너블한 연출이 가능한 컬러 블록 디자인까지 새롭게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특히 이 제품은 편안하면서도 여유 있는 루즈핏으로 두꺼운 겨울철 이너를 입어도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벌로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투웨이(2-Way) 스타일의 'NBA 코트 에어 멀티 다운'도 눈길을 끈다. 한쪽 면은 우븐 소재를 적용해 찬바람을 막아주며, 단색 컬러로 심플함을 살렸다. 다른 한 면은 부드러운 터치감의 보아 퍼로 보온성을 더욱 살렸으며, 레트로 무드를 살려주는 호피 무늬 패턴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플리스와 솿패딩 등 힙한 스트리트 감성의 스타일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NBA 마케팅 담당자는 "급격히 찾아온 추위와 더불어 활동성도 갖추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솿 기장의 다운 패딩의 인기가 이어지는 트렌드에 발맞춰, NBA만의 힙한 감성과 스트리트 무드를 담아낸 코트 에어 다운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트렌디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과 공기를 입은 듯한 경량과 보온성이 특징인 이번 아우터 제품으로 겨울철 스타일리시한 데일리룩을 연출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WINTER LOOKBOOK FOR HANSAE

LAL LAKERS 밍크보아
리버시블 다운(N224DW111P)
15% 254,150원 299,000원



CHI BULLS 방모 스테디움 점퍼
(N224JP103P)
15% 228,650원 269,000원



유니)오버)넥 배색 풀오버
(O184KT240P)
89% 9,000원 79,000원



네쥬 여성 여름 주름 핏턱 플리츠
포켓 미니 스커트
43% 42,000원 73,200원



[PR]NBA 스몰 로고 쪽티
(N223TS952P)
15% 24,650원 29,000원



스콰즈 선글라스 SV1014 캐주얼
자외선 차단 아이웨어 섀글라스
34% 19,800원 29,800원

유니 골드 버클 벨트(B215AT150P)
14% 59,000원 69,000원



네쥬 봄 여름 편한 밴딩
슬림핏 5부 바이커 팬츠
42% 15,000 26,000원



NBA 스타디움 미드 스니커즈
(N225AS212P)
15% 135,150원 159,000원



[네오쿠비카]빅사이즈 주름워싱
진청 데님스커트R158
43,500원

LAL LAKERS 크롭 반집업 맨투맨
(N224TS712P)
15% 75,650원 89,000원





새로워진 디자인과 컬러로 더욱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NBA키즈, 완판 신화 '시리얼 다운' 라인업 업그레이드 출시

지난 겨울 완판 기록으로 실적 견인한 '시리얼 다운' 라인업 확장, 신규 디자인 및 컬러 추가해 리뉴얼 시리얼 한 상자(600g)보다 가벼운 무게에 편안함 & 보온성 갖춰..RDS 인증 충전재 사용해 눈길 지난해 출시된 롱다운 더해 소비자 요청 반영한 숏다운 버전도 함께 출시,신규 컬러도 함께 선보여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지원, 임동환)의 아동복 브랜드 NBA키즈가 지난해 겨울 완판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킨 '시리얼 다운' 라인업을 확장, 보다 다채로운 컬러와 디자인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선보인다고 밝혔다.

NBA키즈가 작년 첫 선을 보인 시리얼 다운 시리즈는 시리얼 한 상자(600g)보다 가벼운 무게에 편안함과 보온성을 모두 갖춘 구스 다운 점퍼로, 지난 겨울 90%에 가까운 판매율과 함께 완판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전 제품 모두 살아있는 동물의 털을 강제로 채취하지 않는 책임 다운 인증(RDS)을 획득한 충전재를 사용, ESG경영 차원에서도 환경을 생각한 '착한' 구스 다운 점퍼로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올해 업그레이드해 선보인 시리얼 다운 신규 라인업은 롱다운만 선보였던 전년과는 달리, 꾸준히 이어진 소비자들의 요청에 발맞춰 숏다운 버전도 함께 발매했다. 시리얼(cereal) 한 상자보다 가볍지만 도근하고 따뜻한 진짜 (see-real) 다운 점퍼로 겨울철에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고 착용감이 우수하여 매일 손이 가는 데일리 점퍼로 제격이다. 무릎까지 덮는 기장에 가볍고 슬림한 핏을 더한 'NBA 스포츠 시-리얼 구스 롱다운 점퍼'와 엉덩이까지 덮는 미들 기장에 편안한 활동감과 귀여운 실루엣을 살린 'NBA 스포츠 시-리얼 구스 숏다운 점퍼' 두가지 디자인 중 취향에 따라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포켓 등 수납 공간을 넉넉히 더해 한층 활용성을 높였다. 롱다운의 경우 기존의 블랙, 라이트 그레이, 민트 컬러에 더해 베이지, 퍼플 등 신규 컬러를 추가했으며, 숏다운은 베이지, 핑크, 블랙 컬러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한세엠케이 NBA키즈 담당자는 "지난해 목표치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리얼 다운 점퍼를 올 겨울 더욱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며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물량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만큼 전년 대비 더욱 높은 고객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995년 설립 이후 25년 넘게 패션 외길을 걸어온 정통 패션기업 한세엠케이는 현재 버커루, NBA, NBA키즈, PGA TOUR & LPGA 골프웨어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올 7월 국내 대표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과의 합병으로 패션업계 내외의 주목을 받는 규모급 기업으로 올라선 만큼, 향후 업계 트렌드를 리드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변화로 고객 경험 확대...
 '새 옷' 입은 NBA키즈 만나보세요. NBA키즈, 신규 브랜드 마케팅 박차...

“주요 매장 리뉴얼 및 리유저블 쇼핑백 출시”

NBA키즈, 매장 리뉴얼 오픈 및 리유저블 쇼핑백 출시 등 고객 경험 확대 초점 마케팅 '새로운 변화'
 주요 매장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돋보이는 신규 인테리어 선보여... 향후 주요 매장 중심 순차 적용
 건강한 지구를 위한 '리유저블 쇼핑백'도 선보여... '농구 코트' 모티브의 디자인&넉넉한 사이즈로 활용도 ↑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 지원, 임동환)의 아동복 브랜드 NBA키즈가 주요 매장 리뉴얼 오픈 및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 출시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대대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NBA키즈는 고유의 헤리티지와 더불어 스포티한 무드와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접목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MZ세대 부모들에게 많은 사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각각 1분기 108%, 2분기 125%씩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최근 선보인 NBA키즈 가을 신상품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18%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NBA키즈는 최근 NBA만의 밝고 활동적인 분위기로 리뉴얼한 매장을 선보이며 오프라인 중심의 고객 경험 강화에 나섰다. 농구대, 농구를 모티브로 한 오브제 및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우드 디자인 인테리어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리뉴얼된 매장은 롯데백화점 구리점, AK평택점, AK수원점 등 총 3곳이다. 이들 매장은 리뉴얼 이후 점 평균 매출이 37%까지 성장하는 등 매출 신장 효과가 지누리고 있다. NBA키즈는 향후 국내외 주요 매장에 순차적으로 리뉴얼 인테리어를 적용하며 오프라인 매장 마케팅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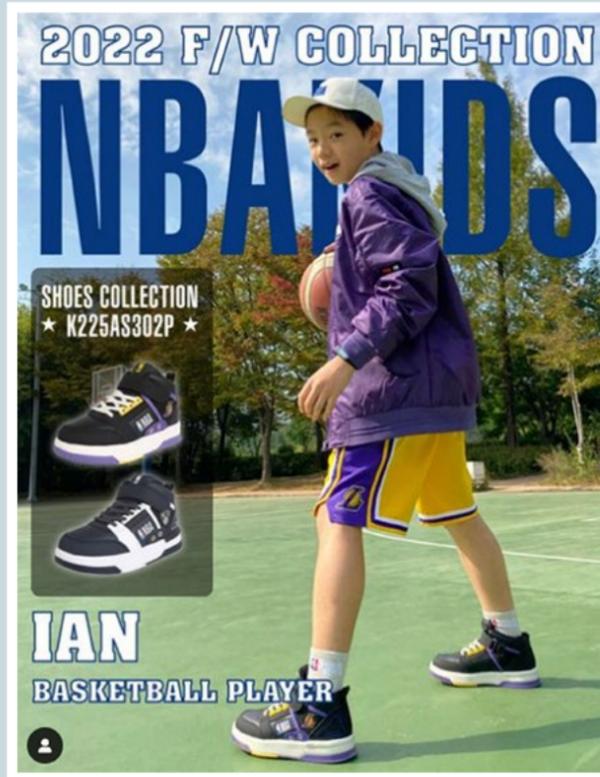
여기에 더해 최근 업계 화두인 친환경 행보에도 동참한다. NBA키즈는 가치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는데 주목, 브랜드 리유저블 쇼핑백을 새롭게 선보였다. NBA 농구 코트를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함께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돼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지구를 위한 리유저블백 사용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해당 쇼핑백은 리뉴얼 오픈한 매장 3곳을 비롯해 국내 NBA키즈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세엠케이 NBA키즈 담당자는 “NBA 특유의 스포티하고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NBA키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많은 분들이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매장 리뉴얼 및 ESG 관련 마케팅 등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브랜드 내 다양한 시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NS 엿보기 NBA KIDS

♡ 100



nbakids_kor • 팔로우

nbakids_kor IAN THE BASKETBALL PLAYER
PLAY ON THE WORLD BY NBAKIDS
8주 번역 보기

nbakids_kor
8주 댓글 달기
— 댓글 보기(17개)

좋아요 61개
10월 7

댓글 달기... 게시

♡ 100

good



nbakids_kor • 팔로우

nbakids_kor - MY COZY FRIEND MY COZY OUTER
몽글 몽글 몽글구름 같은
밍크 퍼 소재 사용으로 포근하고 트렌디
한 #리버시블플리스점퍼

뉴욕 닉스 팀 로고를 사용해
NBA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완전히 살렸어요

박시한 핏으로 편안하고
#NBA키즈로켓업 과 함께하면
더욱더 힌한 점퍼

느바키즈에서 함께해 YO

7주

좋아요 94개
10월 20

댓글 달기... 게시



nbakids_kor • 팔로우

nbakids_kor - LET'S SEE-REAL LONG DOWN JUMPER
환상의 윈터 윈더랜드에서
즐거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씨리얼 한 상자 보다
가벼운 무게로 겨울철 활동 시에
편안~한 착용감
+수납성 까지

한겨울 바람도 든든히 막아줄
#데일리템 #시리얼구스롱다운점퍼

5주

gguggubbo 컬러가 너무 예뻐요
좋아요 119개
10월 28

댓글 달기... 게시

PGA TOUR & LPGA 골프웨어, 2022 F/W 런칭 행사 'PRIVATE SOCIAL PARTY' 성료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2022 F/W 런칭 행사 'PRIVATE SOCIAL PARTY'를 성공리에 마쳤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지원)의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TOUR & LPGA는 지난 7일 플래그십 스토어 '더그레이트 스타트 하우스'에서 2022 F/W 런칭 기념 신상 라인 프레젠테이션 및 조인혁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소개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런칭 행사에는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22 F/W 컬렉션 라인과 조인혁 작가와 콜라보레이션 한 앰블럼 의류, 포토존, 이벤트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공간을 완성했다.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뉴트로 아트워크를 대표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조인혁 작가와 콜라보레이션한 앰블럼 의류는 PGA TOUR와 LPGA 로고를 미국의 빈티지, 클래식 느낌으로 재해석해 선보였다. 계절감이 느껴지는 컬러와 자연을 소재로 한 맨투맨 티셔츠와 모자를 만나볼 수 있으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함께 매치하기 용이해 행사 현장 방문객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러 22 F/W 컬렉션은 가을 시즌에 어울리는 자연 모티브의 그린, 브라운 등 모던한 컬러감과 브랜드 특유의 패턴과 기능성, 활동성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됐다. 전통 골프웨어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디자인에 퍼포먼스를 접목해 젊은 느낌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가디건, 스웨터, 니트 스커트 등 필드와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데일리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스타일리쉬한 아웃핏과 디자인, 기능성을 겸비해 세련된 골프 라이프를 제안한다.

이 날 행사장 중앙에는 골프 라이프를 즐기는 골퍼의 방을 컨셉으로 한 PGA ROOM 포토존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게임존, 퍼스널 컬러 테스트 등의 이벤트로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워진 PGA TOUR & LPGA 골프웨어 모습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선사하고자 했다"며 "골프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에 세련되고 차별화된 필드룩을 찾고 있다면 PGA TOUR & LPGA 골프웨어를 주목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PGA TOUR & LPGA 골프웨어 2022 F/W 컬렉션은 전국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코어를 즐기는 방법'

PGA TOUR & LPGA 골프웨어, 2022 F/W 시즌 '스윙 다운' 출시

퀵팅 스티치가 없는 튜브다운 '스윙 다운' 출시
스윙에 최적화된 기능성과 활동성에 중점을 둔 퍼포먼스 골프웨어
가장 미국적인 프리미엄 골프 라이프스타일, 겨울 라운드룩 제안
전판 로고플레이의 세련된 디자인, 일상에서도 데일리룩 연출 가능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본격적인 겨울 라운딩 시즌을 맞아 한층 강화된 퍼포먼스 스타일로 찾아왔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임동환, 김지원)의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TOUR & LPGA는 겨울시즌을 맞아 2022 F/W 시즌 핫멜트 '스윙 다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스윙 다운 컬렉션은 기능성과 활동성에 중점을 두었다. 스윙다운은 퀵팅 스티치가 없는 튜브다운으로 다운 누수가 적다. 또한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보온성에 탁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니트, 저지 소재 하이브리드 적용으로 겨울 아우터 착용시 스윙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켰으며 편안한 착용감으로 필드 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신제품 중 하나인 남성 핫멜트 '스윙다운'은 등판 패널 디테일과 사이드 신축성 원단사용으로 스윙시 핏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내장형 후드 장착으로 편리함과 실용도를 높였으며, 모던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필드 외 일상에서도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다.

LPGA로고를 패턴으로 표현한 여성 폭스 퍼 '스윙다운'은 고급스러운 그레이와 블랙컬러로 출시 되었다. 사이드 저지소재 사용으로 편안한 스윙을 도와주며, 허리를 잡아주는 벨트 디테일로 슬림한 라인을 강조했다. 카라에 풍성한 폭스 퍼로 여성스러운 실루엣 연출과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스윙다운 외 퍼포먼스와 스타일이 접목된 스웨터, 팬츠, 골프 캡 등의 다양한 22 F/W 겨울 제품들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겨울시즌에 본격적으로 라운딩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가장 미국적인 프리미엄 골프 라이프스타일, 스윙 다운과 함께 필드 위 최상의 컨디션으로 골프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PGA TOUR 온라인몰

PGA TOUR & LPGA GOLFWEAR



LPGA 온라인몰



PGA TOUR 온라인몰

PGA TOUR & LPGA GOLFWEAR



LPGA 온라인몰



세련된 남성미로 트렌디한 빈티지 무드 완성

버커루, 배우 나인우와 함께 겨울 아우터 시리즈 화보 공개

버커루, 옛스타일 매거진과 함께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나인우 아우터 화보 선보여 싹풀(THINFULL) 다운 시리즈, 혁신적인 기술로 더 가볍고 보온성을 자랑하는 다운점퍼 출시

스타 등용문으로 불리는 버커루가 최근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나인우와 함께 새로운 옛스타일 아우터 화보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프리미엄 빈티지 브랜드 버커루(BUCKAROO)는 스타&스타일 매거진 옛스타일과 함께 배우 나인우 화보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배우 나인우는 많은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다. tvN 철인왕후, KBS2 달이 뜨는 강, 징크스의 연인 등 다양한 드라마 배역을 통해 인기를 모았으며, 올해 1박 2일 고정 출연 멤버로 발탁되어 엉뚱하면서도 재치있는 매력으로 예능의 섯별로 대중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배우로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6일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동감' 개봉을 앞두고 있다.

공개된 화보에서 배우 나인우는 다양한 포즈와 색다른 매력으로 버커루의 2022 겨울 신상 아우터 아이템들을 완벽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187cm의 우월한 기력과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핏으로 버커루의 프리미엄 빈티지를 본인만의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했다. 특히 화보 속 나인우는 부드러운 눈빛과 미소로 세련된 남성미를 자아내고 있다.

배우 나인우는 버커루 싹풀다운(THINFULL DOWN) 시리즈 아우터로 진중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버커루에서 새롭게 출시한 싹풀다운 시리즈는 가장 진화된 다운점퍼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부피와 무게는 줄이고 보온성은 높은 충전재를 사용해, 이번 겨울 시즌 다운점퍼로 안성맞춤이다. 싹풀 다운 점퍼는 총 숏, 롱 기장에 따라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되었으며, 와이드한 실루엣과 완성도 높은 디테일로 트렌디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이외에 버커루의 베스트셀러 아이템 '무스탕'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코듀로이 다운 베스트', 워싱이 들어간 '피그먼트 후드 다운점퍼' 등으로 버커루의 프리미엄 빈티지 감성을 완벽히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버커루 관계자는 "올해 가장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 나인우와 함께 남성적이고 다채로운 매력이 버커루의 브랜드 이미지와 만나 새로운 빈티지 감성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헤리티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스타들과 함께 새로운 버커루의 모습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버커루는 MZ세대들의 인기를 모으는 배우 이기택, 모델 홍지윤과 함께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을 시작으로 무신사 캠페인, 인플루언서 협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며 고객 접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의식주'가 기본



제가 유럽 여행 중 찍은 사진입니다.
팔짱을 꼭 끼고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힘'있을 땐 혼자도 좋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돈, 풍부한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극단적 소실의 상태에 들면 행복한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를 잃은 삶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이고 고통일 겁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힘(돈, 풍부한 인간관계, 건강)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비록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달리 이름 붙일 수도 있겠네요. '힘'을 건강이라 명명한다면, 돈은 경제적 건강, 풍부한 인간관계는 사회적 건강, 건강은 신체적 건강으로 말이죠.

이 중 신체적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침에 잠 깨고 밤에 잠드는 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없다. 잠 깨는 일이 태어나는 일이고 잠 드는 일이 죽는 일이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그저 역겁의 시간 중 하루에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다. 윤회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는 수명의 절대적 길이, 산술적 길이(quantity)보다는 수명의 질(quality)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요절하지만 앓는다면 건강하지 않은 긴 목숨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과 전혀 무관합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한 삶의 최대 걸림돌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건강 수명의 길이'임이 자명합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언급한 스님의 말씀처럼 죽음은 생로병사의 자연적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명한 이치임을 깨달으면 됩니다. 생(生)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듯이, 로(老), 병(病), 사(死) 역시 우리가 선택사항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과정들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렇다면 이 정해진 질서에서 정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생(生) 이후부터 시작되는 로(老), 병(病), 사(死)의 흐름 자체는 결코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불가항력의 큰 틀 안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 누리기'를 한의학에서는 양생(養生: 생을 복돋우고 기른다)이라고 합니다. 원래 양생이란 도교적 개념이며, 도교에서는 양생을 잘 하면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생의 기본은 첫째, 적절한 의식주를 갖추는 겁니다. 이는 '환경 조절'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衣)는 기온에 맞게 잘 입기입니다. 적절한 의복으로 추위와 더위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감기나 일사병 같은 병에 걸립니다.

식(食)은 잘 먹는 겁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영양균형에 맞게 먹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약간 부족한 듯 일정한 양을 먹는 겁니다. 주(住)는 말 그대로 잘 거주하기입니다. 거주 개념은 의(衣), 식(食)보다는 더 포괄적이며, 다의적인 개념이죠. 여기에는 좋은 공간에서 머무는 것뿐 아니라, 잘 자기까지 포함됩니다. 중국 고대 의학 문헌에 보면, 건강 수명의 기본은 일몰과 일출에 맞춘 수면입니다. 즉, 해 지면 잠자리에 들고, 태양이 뜰 때에 해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겨울

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양생의 둘째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입니다. 이는 '육신 조절'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고대 문헌에서 수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오금희(五禽嬉)라고 하여, 5종류의 짐승의 움직임을 본 떠서 만든 운동입니다. 현대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생의 셋째는 명상입니다. 이는 '정신 조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가의 명상, 불가에서의 좌선 명상, 단전호흡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 칼럼에서는 건강한 삶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우리 신체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食)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제공해보겠습니다.



약력
이상현 원장은 3대째 대를 이어 100년 전통의 약전한의원을 운영 중이다. 이상현 원장의 종조부 이종진(1900~1971년) 선생은 이제마 선생과 함께 근대 한의학의 양대산맥인 석곡 이규준(1855~1923년) 선생의 제자다. 고향인 포항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헌신한 종조부 이종진 선생, 부친 이보우(1938~2016년) 선생에 이어 이상현 원장 역시 한의학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예스24 2022년 베스트셀러 트렌드 및 도서 판매 동향

이야기가 건네준 따뜻한 위로와 감동...
김호연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 올해 최다 판매 도서 등극



PART1. 예스24 선정 2022년 베스트셀러 트렌드 5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쳤던 올 한 해, 책은 난세를 헤쳐 갈 지혜를 제시하고 때론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건네주며 우리 삶의 빈곳을 풍요로 채웠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는 2022년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베스트셀러 트렌드 다섯 가지를 돌아본다.

1-1 **우리의 정서로 시대를 위로하다.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대항연**
혼란한 현실 속 시대적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전한 소설책이 올해도 강세였다. 특히 걸출한 국내 작가들의 이야기가 국내외 독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한국소설이 재주목받은 한 해였다. 다수 국내 작가들의 신간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포진했고 입소문을 탄 작품이 꾸준히 신규 독자들을 이끌며 장기간 순위권을 점유했다.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전하는 힐링 소설의 인기가 여전한데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같이 환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 열풍이 거셌던 작년과 달리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 삶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정한 시선으로 그린 소설이 대세로 떠오른 한 해였다.

동네 골목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따스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상반기에 이어 2022년 최다 판매 도서 1위에 등극했고 8월 출간된 후속작 <불편한 편의점 2> 역시 전편에 버금가는 관심과 호평을 이끌어 2022년 한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1월 출간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또한 평범한 동네 서점을 찾

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위로를 전하며 2022년 한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5위를 기록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스타 작가들의 신작 소설은 출간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단숨에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흐름을 보였다.

작가 김영하가 9년 만에 펴낸 장편소설 <작별인사>는 상반기 두 차례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꾸준한 호평 속 2022년 한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3위를 기록했다. 영웅이 아닌 청년 안중근의 가장 뜨거웠던 시간을 그린 작가 김훈의 장편소설 <하얼빈>은 8월 2주부터 9월 1주까지 5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2022년 한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다. 특히 <하얼빈>은 상대적으로 소설 구매력이 약한 4050 남성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스24] 2022년 한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저	나무옆의자
2	하얼빈	김훈 저	문학동네
3	작별인사	김영하 저	북복서가
4	불편한 편의점2	김호연 저	나무옆의자
5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저	클레이하우스
6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저	창비
7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저	팩토리나인
8	아몬드	손원평 저	창비
9	달려구트 꿈 백화점2	이미예 저	팩토리나인
10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저	자이언트북스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한국 작가들이 'K-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다. 4월 작가 손원평이 <서른의 반격>으로 <아몬드>에 이어 두 번째 일본 서점 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수상한 데 이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며 한국 SF 소설계에 또 한 번의 파란을 일으켰다. 부커상 최종 후보 발표 후 국내 독자들의 관심을 역으로 이끈 <저주토끼>는 4월 3주 1134.5%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초고속 역주행했던 바 있다.

한편 상반기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의 세계적 흥행이 원작 소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며 <파친코 1>과 <파친코 2>가 4월 2주 나란히 종합 베스트셀러 1위와 2위에 올랐다. 이후 이민진 작가의 내한, 인터뷰, 다수의 문학상 수상 등의 활동이 이어지며 7월 출간된 인플루엔셜의 <파친코 1>, <파친코 2> 개정판 역시 판매 시작 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속 점유했다. <파친코> 시리즈는 구판과 개정판 모두 2022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으며, 특히 1권의 합산 판매량은 올해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올해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과 <전지적 독자 시점> 등 화제의 웹소설들이 종이책으로 출간돼 팬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살기 위해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그린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원작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의 경우 1020 구매자 비중이 63.4%에 달해 좋아하는 웹소설을 단행본으로 즐기고 소장하고자 하는 젊은 독자층의 높은 수요를 확인시켰다.

[예스24]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 구매자 성연령비



1-2 **<웰싱킹>부터 <역행자>까지... 불안한 청춘, 성공의 꿈을 읽다**
고금리·고물가 시대가 도래하며 작년과 달리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올해 사람들은 다시 자기계발서를 펼쳤다. 상하반기 연이은 베스트셀러들의 활약으로 작년 역성장했던 자기계발 분야는 올해 6.0%의 성장률로 반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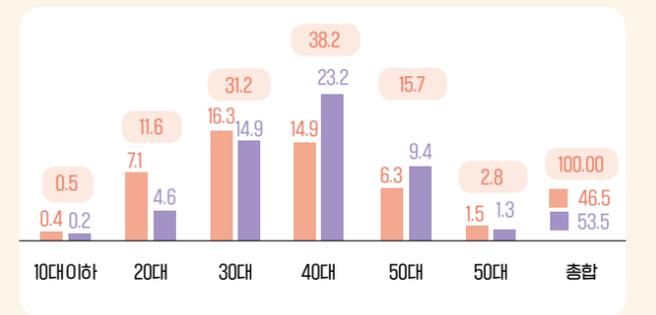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과 고민을 반영하듯 올해는 특히 평범

한 환경에서 자력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체득하고 성공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려는 독서 흐름이 주를 이뤘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영국 상위 0.1% 부자가 된 켈리 최 저자의 <웰싱킹 WEALTHINKING>은 부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긍정적 갈망을 일깨웠다는 호평 속 상반기 13주간 자기계발 분야 1위를 지켰고 2022년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스24에서는 4월 켈리 최 저자의 목소리로 듣는 <웰싱킹 WEALTHINKING> 오디오북을 단독으로 출간해 새로운 재미를 더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5월 출간된 자칭 저자의 <역행자>가 기세를 이어받아 7월 1주차부터 11월 4주차까지 22주 연속 자기계발 분야 1위에 올랐고 7월과 9월 총 4번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대세감을 굳건히 했다.

2022년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빛나는 <역행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부와 행복을 쟁취한 저자 자칭의 인생 역주행 공식이 담긴 책으로 독자들의 실제적 실적을 이끌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8월 말에는 10만 부 판매를 기념해 책 표지를 굵으면 '순리자'에서 '역행자'로 제목이 바뀌는 기발한 페이지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42.8%에 달하는 2030 구매자 비중에 못지 않게 38.2%의 높은 40대 구매자 비중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전 세대의 열망을 투영한다.

[예스24] <역행자> 구매자 성연령비



자기계발 분야 스테디셀러를 역시 꾸준히 읽힌 한 해였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 원리를 소개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걱정을 떨쳐내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법을 역설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 2022년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3위와 6위에 올랐고 성공에 있어 '열정'과 '끈기'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앤절라 더크워스의 <그릿 Grit : 100쇄 기념 리커버 에디션>이 5위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도 미디어와 트렌드를 아우르는 저자의 종합무진 활약 속 <오은영의 화해>가 2022년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4위에 오르며 상처받고 지친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조언을 전했다.

[예스24] 2022년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역행자	차정저	웅진지식하우스
2	웰빙킹 WEALTHINKING	켈리최저	다산북스
3	데일카네기인간관계론	데일카네기저/임상문역	현대지성
4	오은영의 화해	오은영저	코리안닷컴
5	그릿 Grit: 100채 기념 리커버 에디션	앤절라 더크워스저/김미정역	비즈니스북스
6	데일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카네기저/임상문역	현대지성
7	원씽 THE ONETHING	게리켈러 저/이피파산공저/구세희역	비즈니스북스
8	5년 후 나에게 Q&A day (2022 오리지널)	포터스타일저/정치현역	토네이도
9	잘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권민창저	마인드셋
10	타이탄의 도구들 (블랙 에디션)	팀페리스저/박선령 정치현공역	토네이도

1-3 마침내, 소장할 결심... 영화·드라마 대본집 신드롬 이끈 2030
 대본집·각본집·포토에세이·스토리보드북 등 흥행 영화나 드라마 연계 도서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높은 판매를 이끌며 영상 콘텐츠를 활자로 향유하는 감상 양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된 한 해였다.

예스24의 집계 결과 올해 출간된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는 78종으로 최근 3년 이래 그 수가 가장 많았으며 판매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작년 대비 138.97%의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24] 최근 3년간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 출간 및 판매 추이



2022년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 베스트셀러 1위는 '차관람' 열풍을 이끌며 장기 흥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오리지널 각본집 (헤어질 결심 각본)이 차지했다. 독특한 매력을 풍기는 명대사들은 물론 영화에는 삭제된 장면들까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담아낸 '헤어질 결심 각본'은 7월 중순

예약 판매 직후 2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2022년 종합 베스트셀러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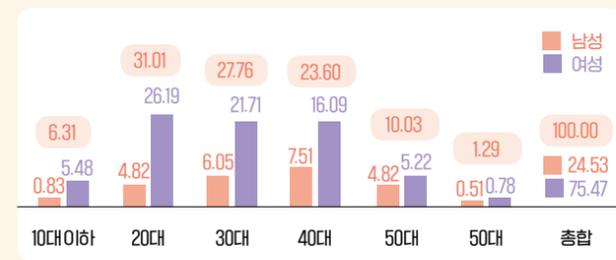
올 초 인기리 방영된 SBS 드라마 '그 해 우리는' 대본집을 비롯해 화제의 웹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와 <시맨틱 에러 대본집> 역시 마니아층의 격한 호응을 이끌었다. 2018년 종방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대본집 (나의 아저씨 세트)가 3월에 출간돼 가시지 않은 여운에 새로운 감동을 전했고 하반기 신드롬급 흥행을 터뜨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본집은 8월 예약 판매 약 하루 만에 5천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예스24] 2022년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헤어질 결심 각본	정서경·박찬욱공저	을유문화사
2	그해 우리는 1	이나은저	김영사
3	그해 우리는 2	이나은저	김영사
4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왓차·래몽래인공저	blackD (블랙D)
5	나의 아저씨 세트 (초판 에디션)	박해영저	세계사
6	시맨틱 에러 대본집	제이션저	blackD (블랙D)
7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문지원저	김영사
8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문지원저	김영사
9	웃소매북은 끝동 1, 2 대본집 세트	정해리글	청어람
10	웃소매북은 끝동 포토에세이	MBC 웃소매북은 끝동 제작팀저	위즈덤하우스

서점가에 거대한 물결을 만든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들의 강세는 2030 여성 독자층의 주도로 구축됐다. 예스24의 집계 결과 2022년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의 2030 구매자 비중은 전체 과반을 넘었으며, 동일 연령층 여성 독자의 비율은 무려 47.9%에 달했다. 좋아하는 콘텐츠 관련 소비에 적극적인 이들 세대는 비단 작품을 소장함에서 나아가 대사의 말맛을 활자로 음미하고 감독이나 작가가 밝히는 제작 초기 설정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책을 통해 곱씹으며 하나의 콘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즐기는 새로운 감상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예스24] 2022년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 구매자 성연령비



2022년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 10위권 중 1위부터 8위까지는 모두 영화·드라마 대본집이 차지했다. 이는 영상 콘텐츠 연계 도서들이 단순한 굿즈 개념에서 나아가 하나의 독립적 문학 콘텐츠이자 예술 작품으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연말에도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슈룹'과 KBS 드라마 '진검승부' 대본집을 비롯해 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비상선언' 각본집까지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들이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1-4 아이부터 어른까지, 독서로 키우는 어휘력·문해력
 코로나19 이후 소통의 단절과 학습 격차로 인한 아이들의 어휘력·문해력 저하와 더불어 올해는 '심심한 사과' 논란이 촉발한 어른들의 어휘력·문해력 문제 역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관련 도서들의 출간과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세대를 불문하고 책을 통해 언어 이해력과 구사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독서 흐름이 포착됐다. 예스24 집계 결과 올해 '어휘력' 또는 '문해력' 키워드를 포함하는 신간은 132종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판매량 역시 2020년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는 작년 대비 18.65%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예스24] 최근 3년간 '어휘력' 또는 '문해력' 키워드가 포함된 도서 출간 및 판매 추이



특히 자녀의 기초 문해력 교육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반영하듯 <EBS 당신의 문해력>과 <문해력 유치원> 등 가정 실용 분야 자녀 교육서들이 2022년 '어휘력' 또는 '문해력' 키워드가 포함된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포진했다. <문해력 수업>이나 <초등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 1단계> 등 아이 문해력 향상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실천을 가이드하는 책들도 관심을 모았다. 어른들의 어휘력·문해력 저하 현상이 화두가 되고 학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도서 역시 성장 흐름을 보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휘력·문해력·글쓰기·맞춤법 관련 인문서 출간 종수는 작년 127종에서 올해 163종으로 늘었으며 이러한 도서는 2030 청년층뿐 아니라 4050 중년층에게 더욱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예스24 집계 결과 40대와 50대 구매자 비중이 51.26%를 차지했으며 20대와 30대 구매자 비중은 41.85%로 뒤를 이었다.

성인 어휘력·문해력 관련 도서 가운데는 말의 품격을 높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어휘 사용 가이드 <어른의 어휘력>과 성인을 위한 문해력 업그레이드 훈련서 <어른의 문해력> 등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예스24] 2022년 성인 대상 어휘력·문해력·글쓰기·맞춤법 관련 인문서 구매자 성연령비



한편 자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 흐름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의 영향으로 어린이 창작동화 판매가 꾸준했던 한 해였다. 어두운 현실 속 용기를 잃은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한 <간밤>이 2022년 어린이 창작동화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이상한 과자 가게 천천당 시리즈'와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 등 인기 시리즈들은 신간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 판매를 이끌며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스24] 2022년 '어휘력' 또는 '문해력' 키워드가 포함된 도서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EBS 당신의 문해력	EBS 당신의 문해력 제작팀 기획/김윤정글	EBS BOOKS
2	문해력 유치원	최나야 외 4인저	EBS BOOKS
3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김도연저	길벗
4	어른의 어휘력	유선경저	앤의서재
5	어른의 문해력	김선영저	블랙피쉬
6	1일 1페이지로 완성하는 초등 국영수 문해력	권태형·주단저	북북북
7	문해력 수업	전병규 (콩나물쌤) 저	알에이치코리아
8	초등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 1단계	최나야·정수정공저	로그인
9	초등 맞춤법 50일 완주 따라쓰기 기초 편	권귀헌저	서사원주니어
10	문해력 교과서: 초등 국어 1학년	이도영 외 9인저	창비교육

[에스24] 2022년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긴긴밤	루리글/그림	문학동네
2	고양이해결사감냥4	홍민정글/김재희그림	창비
3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13	히로시마레이코글/자자그림/김정화역	길벗스쿨
4	동살이네떡집	김리리글/김이랑그림	비룡소
5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14	히로시마레이코글/자자그림/김정화역	길벗스쿨
6	143층나무집	앤디그리프스글/테리던튼그림/신수진역	시공주니어
7	달콩이네떡집	김리리글/김이랑그림	비룡소
8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15	히로시마레이코글/자자그림/김정화역	길벗스쿨
9	푸른 사자와니니	이현글/오윤화그림	창비
10	만복이네떡집	김리리글/이승현그림	비룡소

1-5 문학적 과학, 실용적 철학... 경계 넘나든 인문 교양 화제작
 인문 교양 도서들 중에서는 고유의 학문적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바 '문학적인 과학책'과 '실용적인 철학책'이 색다른 매력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올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단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작년 12월 출간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돼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월 2주부터 6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5위권에 들었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2022년 2월 2주차에 1위를 차지한 이후 5월 5주를 제외하고는 무려 4주간 자연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했다.

과학 전문 기자 룰루 밀러의 데뷔작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물학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서지만 삶을 성찰하는 인문 에세이에 가까운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딱딱한 이론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문체와 작가의 감수성이 가미된 스토리텔링은 여성 독자층의 높은 호응을 이끌기에도 충분했다. 실제 올해 자연과학 분야 전체 도서의 2030 여성 구매자 비율은 14.2%인 데 비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경우 40.2%가 2030 여성 구매자였다.

같은 맥락에서 생명과학을 근간으로 분노와 혐오의 시대를 넘어 따뜻함과 다정함이 만드는 희망의 시대를 모색한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역시 작년에 이어 꾸준히 읽히며 2022년 자연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24] 2022년 자연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저/정지인역	공출판
2	코스모스	칼 세이건저/홍승수역	사이언스북스
3	이기적유전자 The Selfish Gene	리처드 도킨스저/홍영남·이상임공역	엘유문화사
4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헤어베네사우즈공저/이민아역/박한선감수	디플룻
5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정재승저	어크로스
6	떨림과 울림	김상욱저	동아시아
7	노화의 종말	데이비드 A 싱클레어·매슈 M. 러플랜드공저/이한음역	부키
8	엔드 오브 타임	브라이언 그린저/박병철역	와이즈베리
9	코드브레이커	윌러아이작슨저/조은영역	웅진지식하우스
10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리사 펠드먼 배럿저/변지영역/정재승감수	더퀘스트

인문 분야에서는 특유의 학술성을 탈피하고 실용성을 더한 철학서들이 중년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철학 사상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 삶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일상 속 계획과 실천을 돕는 책들이 다. <오십에 읽는 논어>는 고민과 허무로 가득한 중년의 삶에 용기와 지혜를 전하며 2022년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4위 및 2022년 종합 베스트셀러 39위에 이름을 올렸고 <오십에 읽는 장자>와 <마흔에 읽는 니체> 시리즈가 차례로 출간돼 화제를 모았다.

한편 2월 말 이여령 선생의 타계 후 그가 남기고 떠난 유작들이 주목받고 작년 말 출간된 대담집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 역주행해 2022년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1위 및 2022년 종합 베스트셀러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숲 속의 현자라 불렀던 비운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위로와 지혜를 담은 에세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고 최재천 교수와 김형석 교수 등 국내 원로 지식인들의 책도 꾸준히 읽히며 지혜가 절실해진 시대 상황을 투영했다.

[에스24] 2022년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이여령저	열림원
2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운 나티코 린데블라드저/토마스 산체스 그림/박미경역	다산초당

3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마누엘 투쉬 공저/김희상역	포레스트북스
4	오십에 읽는 논어	최종엽저	유노북스
5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저/조현욱역	김영사
6	최재천의 공부	최재천·안희경저	김영사
7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저/김하현역	어크로스
8	전념	피트 데이비스저/신유희역	상상스퀘어
9	클루지	개리 마커스저/최호영역	갤리온
10	조국의 법고전산책	조국저	오마이북

Part 2. 에스24 2022년 도서 판매 동향 분석

2-1 에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
 2022년 에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작가 김호연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차지했다. 2021년 4월 출간돼 올 상반기 최다 판매 도서에 오른 바 있는 <불편한 편의점>은 하반기 후속작 <불편한 편의점 2> 출간으로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판매를 이끌며 2022년 베스트셀러 1위를 거머쥐었다. 동네 골목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우리 이웃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린 소설로 고단한 일상에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는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에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로는 2020년 불안을 잠재우고 부와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가짐에 대해 소개한 자기계발서 <더 해빙 The Having>이, 2021년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위로를 전한 힐링 판타지 소설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 선정된 바 있다.

[에스24] 2020-2022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도서

연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2022년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저	나무옆의자	소설/시/희곡
2021년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저	팩토리나인	소설/시/희곡
2020년	더 해빙 The Having	이서윤·홍주연공저	수오서재	자기계발

2-2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 판매 동향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품은 소설들이 고단한 일상에 휴식을 건넨 한 해였다.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웃음을 나누는 이웃들의 따뜻한 감동을 담은 <불편한 편의점>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동양 평화를 가

슴에 품었던 청년 안중근의 시간을 그린 김훈 <하얼빈>이 3위에 올랐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작가 김영하의 깊은 시선이 담긴 소설 <작별인사>는 4위에 자리했으며 전편의 시간으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여름날의 이야기를 그린 <불편한 편의점 2>는 5위를 기록했다. 평범한 동네 서점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연대와 위로를 전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가 17위에 자리했으며 역사로부터 외면받은 제일 조선인 가족의 대서사극 <파친코 1> (문학사상)은 20위에 안착했다.

상반기 연이어 등장한 자기계발 분야 화제작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돈·시간·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라이프해커 자칭의 인생 역주행 공략집 <역행자>가 2위를 차지했으며 삶의 변화를 이끌고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를 제시한 켈리 최 저자의 <웰싱킹 WEALTHINKING>이 11위를 기록했다.

인문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삶의 울림과 성찰을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시대의 지성故 이여령 선생이 남기고 떠난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의 메시지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 6위에 올랐고 생물학을 근간으로 상실과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를 이야기한 룰루 밀러의 에세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9위를 기록했다.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작년에 비해 재테크 도서 판매가 주춤했지만 내년 소비 전망을 향한 뜨거운 관심 속 <트렌드 코리아 2023>이 7위에 올랐다. 경제에 대한 기초 상식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은 한 해 동안 꾸준한 신규 독자를 이끌며 12위에 올랐다.

어린이 분야에서는 동물들의 여정 속에서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는 창작동화 <긴긴밤>이 작년에 이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15위에 올랐다. 사회 정치 분야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18위에 들었으며 예술 분야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오리지널 각본집 <헤어질 결심 각본>이 19위에 안착했다.

녹록지 않은 취업 분위기 속 토익 및 한국사 수험서들도 꾸준히 판매됐다.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3 READING 리딩>과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3 LISTENING 리스닝>이 8위와 10위에 올랐고 <해커스 토익 기출 VOCA 보카>는 14위를 기록했다. <2022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 2, 3급) 상>과 <2022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 2, 3급) 하>는 각각 13위와 16위에 자리했다.

[에스24] 2020-2022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도서



베스트셀러 1위 불편한 편의점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1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저	나무옆의자	소설/시/희곡
2	역행자	자청저	웅진지식하우스	자기계발
3	하얼빈	김문저	문학동네	소설/시/희곡
4	작별인사	김영하저	북복서가	소설/시/희곡
5	불편한 편의점 2	김호연저	나무옆의자	소설/시/희곡
6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이어령저	열림원	인문
7	트렌드 코리아 2023	김난도·전미영등저	미래의창	경제 경영
8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3 READING 리딩	ETS저	YBM (와이비엠)	국어 외국어 사전

9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롤루 밀러저	공출판	자연과학
10	ETS 토익 정기 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3 LISTENING 리스닝	ETS저	YBM (와이비엠)	국어 외국어 사전
11	웰씽킹 EALTHINKING	켈리 최저	다산북스	자기계발
12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로버트 기요사키 저/안진환역	민음인	경제 경영
13	2022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1, 2, 3급) 상	최태성저	이투스북	수험서 자격증
14	해커스 토익 기출 VOCA 보카	David Cho저	해커스 어학연구소	국어 외국어 사전
15	긴긴밤	루리클,그림	문학동네	어린이
16	2022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1, 2, 3급) 하	최태성저	이투스북	수험서 자격증
17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저	클레이 하우스	소설/시/희곡
18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박근혜저	가로세로 연구소	사회 정치
19	헤어질 결심 각본	정서경·박찬욱 공저	을유문화사	예술
20	파친코 1	이민진저/이미정역	문학사상	소설/시/희곡

2-3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도서 분야별 중수

2022년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도서들의 분야별 중수를 살펴본 결과 소설/시/희곡 분야가 작년보다 3종 늘어난 20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어린이 분야는 작년 대비 4종 적은 13종으로 뒤를 이었고, 작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경제 경영 분야는 올해는 12종의 도

서를 100위권에 올리며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다.

소설/시/희곡 분야에서는 올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 소설 <불편한 편의점>과 후속편 <불편한 편의점 2>를 비롯해 김훈 <하얼빈>과 김영하 <작별인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소설가들의 책이 5위권 이내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애플TV+ '파친코' 흥행 이후 화제를 모아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민진 작가의 원작 소설 <파친코> 시리즈를 비롯해 작가 정지아가 32년 만에 펴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9월 출간 후 꾸준히 독자들을 이끌며 30위권 이내 이름을 올렸다.

[에스24] 2022년 자연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0



어린이 분야에서는 15위에 오른 창작동화 <긴긴밤>과 더불어 <흔한남매 10>과 <흔한남매 과학 탐험대 4 물질> 등 '흔한남매'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습 만화 시리즈들이 100위권에 들었고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시리즈와 <이상한 과자 가게 천천당> 시리즈 등 탄탄한 어린이 팬층을 거느린 시리즈들도 100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경제 경영 분야의 경우 7위에 오른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단기간 판매량이 압도적이었으며 <돈의 심리학>과 <돈의 속성 200쇄 리커버> 등 투자 재테크 책들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와 <세븐테크> 등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 투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도 100위권에 들었다.

2-4 도서 분야별 판매 점유율 및 판매 증감률

2022년 도서 분야별 판매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중고등학생서 분야의 점유율이 18.2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서 분야와 어린이 분야가 각각 9.70%와 9.20%의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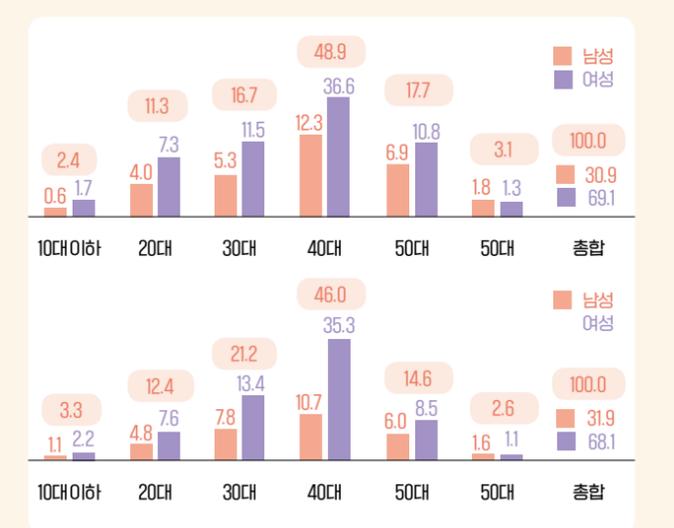
작년 대비 판매가 늘어난 분야는 자기계발 분야로 올해 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웰씽킹 WEALTHINKING>과 하반기 <역행자>의 연이은

흥행과 함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 부와 성공의 지혜를 탐독하고자 하는 독자 흐름이 자기계발 분야 판매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 성연령별 도서 구매 비율

2022년 연령별 도서 구매 비율 집계 결과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40대(48.9%) 구매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년 대비 40대 이상 구매자 비중은 각 연령대에서 소폭 증가한 데 비해 30대 이하 구매자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성비는 작년과 동일한 약 3:7로 여성 구매자 비중이 높았다.

[에스24] 성연령별 도서 구매 비율





책과 저자, 우리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도서 팟캐스트

예스24, 도서 팟캐스트 '책읽아웃' 5주년 맞아 특별 방송 진행

2017년 10월 19일 첫방송 이래 238명 작가 출연, 946권 도서 소개
10월 20·27일 특별 방송 게스트 예고... 5주년 기념 리뷰 대회 수상작 공개



예스24 도서 팟캐스트 '책읽아웃'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만드는 도서 팟캐스트 '책읽아웃'이 5주년을 맞이해 특별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열린 5주년 기념 리뷰 대회 수상작 5편도 공개했다.

2017년 10월 1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책읽아웃'이 5년간 소개한 도서는 무려 946권에 달한다. 또한 은희경·한강·정세랑·장강명·문소리·김애란·최은영·이슬아·김훈·박상영 등 방송에 출연한 작가만 해도 2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스24는 수많은 책과 작가, 그리고 구독자들과 함께 이룬 '책읽아웃' 5주년을 기념하며 특별 방송을 진행했다. 10월 20일 '황정은의 야심한책' 코너

에는 소설가 정지돈이 함께하며 10월 27일 '오은의 웅기증기' 코너에는 소설가 김병운이 출연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앞서 '책읽아웃' 5주년을 맞아 진행된 리뷰 대회 수상작들도 공개됐다. 총 5편의 책읽아웃 리뷰 수상작은 예스24 문화 웹진 '채널예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주년을 맞은 현재 팟빵·팟캐스트·네이버 오디오클럽 채널 합산 약 5만 명의 구독자가 '책읽아웃'과 함께하고 있다. 역대 코너로는 '김하나의 측면 돌파'와 '김동영의 읽는인간'이 있으며, 현재는 매주 수목금 '이혜민의 요즘산책'·'황정은의 야심한책'·'오은의 웅기증기' 코너로 구독자를 만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 수상 어린이와 가족 310여 명 초대

제19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시상식 성료... "책과 꿈 공존한 뜻깊은 시간"



제19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시상식 전체 수상자 단체 사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19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식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 어린이와 그 가족을 포함한 310여 명이 초대돼 자리를 빛냈다.

수상의 기쁨과 따뜻한 축하로 채워진 시간... 체험 부스·포토존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마련

7월 13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 제19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는 작년 대비 약 22% 늘어난 1만 4천여 편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지난 11월 5일 3년 만에 열린 시상식 역시 최대한 많은 어린이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 현장에는 다양한 사전 이벤트가 마련돼 수상 어린이와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린이들은 김리리 작가의 베스트셀러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를 모티브로 한 떡집 체험 부스 및 독후감·독후화로 꾸며진 포토존 등을 즐기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시상을 맡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박주옥 관장(좌),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영다연 어린이(우)

올해 개인 부문 대상은 세종가득초등학교 6학년 영다연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심사를 맡은 임은경 작가는 수상작에 대해 "『담을 넘은 아이』 속 주인공



예스24 그레제본소, <스킵과 로퍼> 종이책 출간 펀딩 2,001% 달성

그레제본소 단독 펀딩서 2주 만에 2,589부 달성하며 뜨거운 관심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 그레제본소가 <스킵과 로퍼> 종이책 출간 펀딩 2,001% 달성을 기념하며 SNS 공유 이벤트 등 풍성한 증정 및 할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앞선 10월 24일 예스24 그레제본소는 일본 순정 만화 <스킵과 로퍼> 12권 종이책 출간을 위한 단독 펀딩을 진행했다. <스킵과 로퍼> 한국어판 종이책 출간을 기다려 온 국내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 펀딩은 약 2주간 총 2,589부를 기록하며 목표 대비 2,001%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펀딩은 전체 참여자 중 20대가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 받았으며,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작품' 등의 호평과 함께 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예스24는 성공적 펀딩을 기념하며 다양한 증정 이벤트 및 eBook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월 15일까지 <스킵과 로퍼> 종이책 12권을 읽고 가장 좋았던 장면을 SNS에 공유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 포스팅 링크를 남기면 총 7명을 추첨해 작가의 사인이 인쇄된 일러스트 아크릴 액자를 제공하고, <스킵과 로퍼> 시리즈 종이책 2권 이상 구매 시 렌티큘러 카드를 한정 수량 증정하는 이벤트다.

공 푸실이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현재 자신이 처한 진로 문제와 비교해가며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담담하게 잘 묘사해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엮다연 어린이는 "『담을 넘은 아이』를 읽으며 주인공 푸실이에게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 행동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재미와 감동, 격려와 교훈을 주는 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어린이들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참석한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의 김리리 작가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쓴 어린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여러분이 좋은 책과 글을 통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개인 부문 대상 엮다연 어린이를 포함한 개인상 총 78명과 단체상 9명이 행사에 참여해 직접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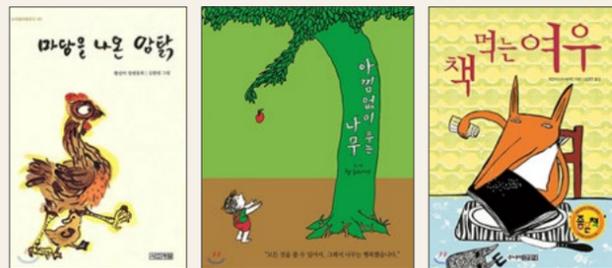
시상식 현장 내 마련된 '만복이네 떡집' 떡집 체험 부스

국내 최대·최장수 어린이 독후감 대회…

19회 기간 동안 8만 명 넘는 어린이 참여, 총 응모편수 22만 건

2005년 4월 처음 시작된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는 첫 회에만 2,200여 편, 이어 제2회 대회에서는 8,600여 편의 독후감이 접수되며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첫 해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여름마다 대회 시작을 알리며 국내 최대·최장수 어린이 독후감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3회차부터는 매년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예스24 집계 결과, 지금까지 약 5,700개 학교에서 8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대회에 참여했으며 누적된 응모편수는 총 22만여 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응모된 도서는 순서대로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저, 사계절), 『아낌없이 주는 나무』(셀 실버스타인 글·그림, 시공주니어), 『책 먹는 여우』(프란치스카 비어만 저, 주니어김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과 함께 크는 꿈… 뜻깊은 성공 경험으로 유년기 정서에 큰 영향

어릴 적 받은 작은 상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듯, 독후감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수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실제로 예스24 독후감 대회의 수상 경험이 독서·글쓰기에 대한 관심 및 관련 활동 수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17년 제14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서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로 금상을 받았던 이규진 어린이는 6학년이 된 지금 예스24와의 인터뷰에서 "1학년 때 첫 금상 수상으로 성취감을 느꼈고, 이후 매년 도전해 2019년에는 최우수상까지 수상했다. 작은 성공 경험이었지만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심어 주어 이후 다른 대회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당시의 감정을 전했다.

이규진 어린이의 가족은 "풍부한 독서는 책을 입체적으로 읽고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책 내용을 기록하고 자 글을 자주 써보고, 더 나아가 독후감 대회까지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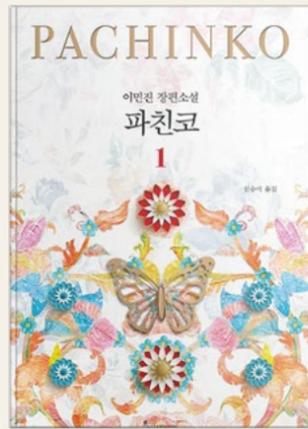
예스24 도서사업본부 최세라 상무는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독후감을 쓰는 즐거움과 멋진 상을 받는 기쁨이 한 어린이의 정서와 꿈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책을 가까이 하며 많은 것을 얻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예스24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19만 독자가 직접 뽑은 "올해 가장 사랑받은 책" 24권

예스24, '2022 올해의 책' 결과 발표... 1위에 이민진 작가 『파친코 1』

총 192,362명 독자 투표 참여... 『파친코 1』 3.1% 득표율로 1위 등극
총 100권의 후보작 중 상위 24권 수상... 소설시회곡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예스24 '2022 올해의 책' 1위에 선정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1』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올해 제20회를 맞은 연례 문화 행사 '2022 올해의 책' 투표에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1』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독자들의 사전 추천 도서 및 예스24 PD 추천 도서를 포함해 총 100권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2022 올해의 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100% 독자 참여로 진행됐으며, 총 192,362명의 독자가 함께해 올해 가장 사랑받았던 책에 표를 던졌다. 『파친코 1』은 그중 21,006표(3.1%)로 최다 득표수를 얻으며 1위의 영예를 안았다.

'2022 올해의 책' 1위에 오른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1』은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 가족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대서사극으로, 30년이라는 긴 집필 기간을 거치며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민자의 삶을 특유의 통찰력과 공감 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역작이다. 지난 3월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의 흥행으로 함께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개정판으로 출간돼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저자인 이민진 작가는 투표 결과에 대해 "『파친코』를 쓰며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미움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때로 역사가 잔인할지라도 계속 존엄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사람들을 조명하고자 했다"며 "제 책은 그들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소설시회곡, 인문, 가정 살림, 유아, 역사, 자기계발, 어린이, 자연과학 8개 분야에서 총 24권이 '2022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그 가운데 올해의 책 1위 『파친코 1』을 포함한 소설시회곡 분야 도서가 6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 인문 분야 도서 5종, 가정 살림 분야 도서 4종 등 분포를 보였다.

예스24 '2022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파친코 1(인플루엔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열림원)』, 『거꾸로 읽는 세계사(돌베개)』, 『하얼빈(문학동네)』, 『오은영 박사가 전하는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오은라이프사이언스)』, 『엄마의 말 연습(카시오페아)』,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1(다산어린이)』, 『아버지의 해방일지(창비)』, 『최재천의 공부(김영사)』, 『어른의 문해력(블랙피쉬)』, 『작별인사(북복서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곰출판)』, 『애쓰지 않아도(마음산책)』, 『아들의 뇌(포레스트북스)』, 『역행자(웅진지식하우스)』, 『눈 아이(창비)』, 『마음버스(천개의바람)』, 『마음의 법칙(포레스트북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산초당)』, 『연이와 버들도령(책읽는곰)』,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서해문집)』, 『웰빙킹 WEALTHINKING(다산북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육아(21세기북스)』, 『방금 떠난 세계(한겨레출판)』다.

한편, '2022 올해의 책' 투표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사강연회

한세예스24홀딩스, 전사강연회 소식!

2022년 10월 전사강연회



강연자: 김효석 박사(김효석아카데미 대표)

강연 주제: 설득화법과 협상스피치

강연대상: 한세예스24홀딩스 전 계열사 임직원

강의내용: 1) 협상에서 이기는 전술, 2)세일즈 커뮤니케이션

2022년 11월 전사강연회



강연자: 김지용 원장(연세웰정신건강의학)

강연 주제: 정신건강_마음 다스리기

강연대상: 한세실업

강의내용: 1) 공감력 폭발하는 사연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신의학 정보
2) <우울하다면 '심리적 안전기지'를 세워라>, <스트레스 관리법>,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등 저서 관련 강연

2022년 12월 전사강연회



강연자: 오건영 경제전문가

강연 주제: 애프터 인플레이, 누가 돈을 벌까?

강연대상: 예스24 임직원

강의내용: 1) 2023년 경제 전망(환율, 증시 등 경제전망)
2)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보와 인플레이션 흐름속에서의 대처방안

5주년 특집! 오은, 포엄, 캘리의 인생 장면, 인생 책



『너의 표정』

박찬욱 저 | 을유문화사
2021년 10월 01일



불현듯(오은)이 추천하는 책

제 인생의 장면 첫 번째는요,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에요.(웃음) 대학교 때 농활을 갔어요. 김매기 시즌이어서 잡초를 뽑으러 간 것인데요. 환경이 바뀌니까 화장실에 가는 일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8일째가 되는 날, 김매기를 하러 장화를 신고 논 안쪽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신호가 왔어요. 논 깊숙이에서 나오느라, 장화까지 신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디게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를 지켜보던 친구가 “너의 그렇게 비장한 표정은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로요. 어쩌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말이 ‘마려운’ 사람들 같거든요. 저도 글로 그런 마려움을 해소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이 잘 안 되거나 말이 힘들 때는 논에서 걸어 나오던 그 장면을 떠올려요. 마려웠던, 뭔가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저에게 하나의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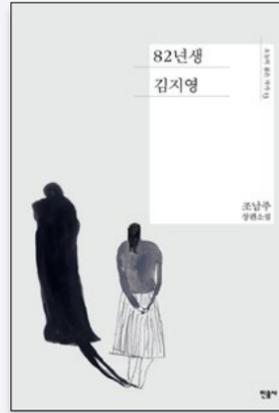
두 번째 장면은 최근의 일이에요. 이사를 결심하고, 지금 사는 동네를 더 들여다보고 싶어져서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산책을 했어요. 가보니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놀이터가 있었는데 하필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무엇을 촬영하는지는 알 수 없었고요. 무심코 영화일까 드라마일까 뮤직비디오일까를 되새기면서 집에 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무슨 촬영을 하는지 물어봤다면 속은 시원해졌겠죠. 하지만 저는 궁금근 상태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또 다시 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글을 쓰게 된 것도 어쩌면 정확히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모르는 상태로 놔두면서 거기를 끊임없이 유영하고, 모험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 앞서 말한 두 가지 경험과 맞닿은 책을 생각하다 바로 이 책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제주도에 있는 ‘만춘서점’에서 행사가 있어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비치된 책들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책이에요. 박찬욱 감독님의 『너의 표정』이라는 사진집입니다. 여기 담긴 사진들은 대부분 촬영을 갔다가 혹은 여행을 갔다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보면서 박찬욱의 예술이 원래 있는 것을 어떻게 담느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사물과 동물, 사람의 뒷모습 같은 데서 표정을 잡아채는 사진집이고요. 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환기시키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 사진들로 가득한 사진집이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저 | 민음사
2016년 10월 14일



프랑스와 엄이 추천하는 책

제 첫 번째 인생의 장면은 저희 스튜디오가 흥대에 있던 시절이에요. 2019년, 제가 처음으로 책을 냈을 때요. 지인들 외에는 반응이 없었을 극 초반기였는데요. 당시 김하나 작가님께서 <김하나의 측면돌파>를 진행하고 계실 때여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출간 기념 사인회를 하고 있었어요. 팬 분들이 엄청 많이 왔고요. 저는 스태프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살짝 다가오시더니 엽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김하나 작가님께 전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태도의 말들』을 읽은 청취자 분이셨던 거예요. 제 책이 읽기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지만 되게 어렵게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보여서 너무 좋게 읽었다고 써주셨어요. 그 엽서를 열 번쯤 읽고, 책상 앞에 아주 오랫동안 붙여 놓았죠. 너무 감사한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는 두 분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 장면이에요. 흥대에서 녹음을 마치고 셋이 지하철을 타고 한남동에 갔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친하지 않았을 때고, 막 친해지려던 때였는데요. 그 날의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어요. 오은 시인님이 저희를 정말 동료로 생각한다고 느꼈고요. 음식도 맛있었고, 그 레스토랑의 조명과 벽에 걸린 그림, 대화를 나누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장면은 집 앞 칼국수집에서의 장면인데요. 반차를 내고 아이 하원을 시켰을 때였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칼국수집에 갔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아이는 점심을 먹은 상태여서 배도 안 고포데 칼국수랑 파전을 시켜 놓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한테 연민을 갖는 걸 즐기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나요. 눈물이 막 차오르는데 아이가 앞에 있으니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한테 인생책 없다고 하소연을 했잖아요.(웃음) 어떤 책을 가지고 올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책까지는 없었어요. 진짜 한 권만 뽑으려면 『82년생 김지영』이거든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소설도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30대에 읽은 책 중 정말 좋았던 책들 몇 권의 제목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시의 문장들』, 『서울 염소』,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 씨』,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 1, 2』까지, 『82년생 김지영』을 포함해서 여섯 권의 책을 꼽아봤습니다.

『두 늙은 여자』

벨마 월리스 저/짐 그랜트
그림/김남주 역 | 이봄 |
2018년 04월 25일



캘리가 추천하는 책

제가 꼽은 인생의 장면은 계획한 것 말고, 계획이 조금은 틀어갈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감정을 일으켰던 장면들로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강아지 후추를 만난 일이에요. 살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새롭게 발견한 것은 돌보는 것의 기쁨이거든요. 이런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한국 사회의 여성으로서 다른 존재를 돌보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얘기했을 때, 돌봄 노동으로 부당하게 차별 받고 있는 여성들도 많은 현실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를 돌보는 데서 느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돌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 저의 인생의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말에 엄마와 함께 영탁 님의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엄마랑 TV를 보는데 <미스터 트롯>의 가수들을 보는 엄마의 에너지가 저는 평생 본 적이 없는 에너지였어요. 그러다 공연에 간다면 엄마 인생이 아주 다채로워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연을 가자고 할 때, 처음에는 엄마가 거절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욕구는 쉽게 포기하는 선택을 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단번에 좋다고 하셨고요. 공연에서도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심지어 며칠이 지나서도 너무 좋았고, 계속 생각난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라는 한 명의 개인이, 자기 삶에서 대단히 기억에 남을 어떤 장면을 만났구나, 싶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저한테도 큰 장면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장면은 아니고 통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일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의 경험이 저의 큰 자랑분이고요. 그래서 인생책도 그 과정에서 만난 책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늙은 여자』라는 책이고요. 띠지에 ‘노년의 성장 소설’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성장이라는 게 노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정말 좋아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삶에 대한 의지나 투지가 흔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의 가치를 생각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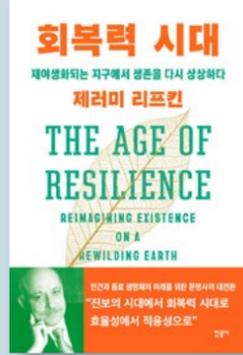
MD 추천도서

1 박형욱 PD의 추천 도서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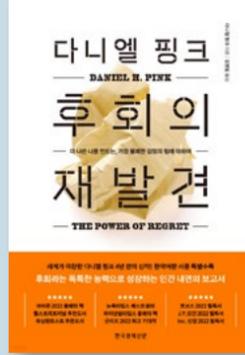
아무튼, 잠
정희재 저 | 제철소
겨울 하면 역시 잠!
진짜 가치를 말하는 책

2 손민규 PD의 추천 도서
사회정치



회복력 시대
제러미 리프킨 저/안진환 역 | 민음사
50년에 걸친 글로벌 경제와 사회 연구를
응축한 제러미 리프킨의 신작

3 김상근 PD의 추천 도서
자기계발



다니엘 핑크 후회의 발견
다니엘 핑크 저/김명철 역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후회의 연속인 인간의 삶,
변화의 지혜가 필요할 때 읽는 책

4 이주은 PD의 추천 도서
건강취미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 365
헤르만 헤세 원저/김윤아 그림/
김빛나래 편역 | 가위바위보
마음에 위안과 희망을 주는
헤르만 헤세의 명문장이 담긴 일력

5 박은영 PD의 추천 도서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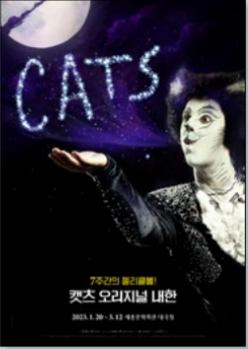
다정한 말, 단단한 말
고정욱 글/릴리아 그림 | 우리학교
고정욱 작가가 직접 고른
보석 같은 스물 네 가지 말

6 신은지 PD의 추천 도서
가정살림



만 원으로 차리는 파인 다이닝
요리용디 저 | 용감한까지
식탁 물가 혼쭐 내주는,
87만 요리 유튜버의 가성비 레시피

포스터/ 공연 소개

콘서트	뮤지컬	뮤지컬	연극	전시
				
멜로망스 전국투어 콘서트 〈FESTIVAL〉 2022.12~2023.02 전국투어	캣츠 2022.12~2023.03 서울, 김해, 부산, 세종	로빈 2023.01.09~2023.04.09 대학로 TOM 1관	서툰 사람들 2022.11.26~2023.02.19 예술24 스테이지 3관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2022.10.25~2023.03.01 국립중앙박물관 기획 전시실

SNS연보기

작가를 찾습니다:
이달의작가#김선오



예술24에서만 독점 공개하는 젊은 작가의 작품!
젊은 소설가와 시인이 전하는 '최애'에 관한 두
근두근한 이야기. <최근담 시리즈>를 통해 내
맘속 작가를 찾으세요.

작가로 돌아온 가수 안예은의
『월간 채널예스』 표지 촬영 비하인드



에세이 『안일한 하루』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안
예은의 『월간 채널예스』 11월호 표지 모델 촬영기!
따뜻한 가을날의 기록을 지금 예스티버에서 만나
보세요.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 <트루 디텍티브>

<월간 채널에스> 2022년 11월호



드라마의 첫 화면. 어둠 속에서 불타는 숲속. 그리고 나서, 한 남자가 심문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 남자는 경찰에서 은퇴한 지 꽤 된, 이제는 사립 탐정 일을 하고 있는 마틴 허트이다. 그는 후배 형사들로부터 오래 전 그의 파트너였던 러스트 폴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러스트는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몇 년 전 다시 나타난 참이다. 마틴과 러스트는 17년 전, 그들이 경찰이던 시절에 끔찍한 살인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다. 기괴하게 보이는 커다란 나무 아래, 사슴뿔로 만든 왕관을 쓰고, 몸에는 이상한 표식이 새겨진 벌거벗은 여성이 기이한 자세로 죽어 있던 사건. 그들은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단서를 쫓았다. 그리고 결국 범인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감금된 아이 둘을 구출해냈다. 다른 장면에서 러스트 역시 후배 형사들에게 질문 세례를 받는다.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마틴과 다르게 러스트는 시종일관 고약한 태도이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자라 있고, 얼굴은 번들거린다. 은퇴한 후 술집에서 일하며 술에 빠져 살고 있다는 그는 금연 구역인 심문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신다.

많은 사람들이 미드 수사물의 대표적으로 <CSI>를 꼽았던 시절이 있다. (내 기억이 맞다면) 토요일 오후에 공중파 방송에서도 방영을 했던 이 드라

마는 특별히 미드를 즐겨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오래 전의 일이긴 하지만) 미드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상대 중 대부분이 <CSI>는 안 보냐고 물어보곤 했다. 내게는 그 드라마가 그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로 앤 오더> 시리즈나, <콜드 케이스> 같은 드라마들도 몇 번 보다가 말았다. 그러므로 <트루 디텍티브>도 한동안은 나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17년 전 일어났던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은퇴한) 형사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 드라마를 왜 봤냐고? 그건 순전히 우연히 본 오프닝 덕분이었다.

시작은 그랬다. 누군가 나에게 미드 최고의 오프닝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매드맨>과 더불어 <트루 디텍티브>를 언급할 것이다. 잿빛 도시를 배경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물속의 사람, 성조기가 그려진 수영복을 입은 여성, 공허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는 향수를 자아내는 듯한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온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도시는,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이런 위험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탐욕은 불가결한 것인가? 왜 그 탐욕의 대상은 언제나 아이들과 여자들인가?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그토록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받는 것일까? 그리고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될 것이다. 왜 아이들과 여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가?

형사들에게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던 러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왜 내가 과거 속에서 살아야 하나? 이 세상 일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누가 그러더군. 시간은 원 같은 거라고, 우리가 했던 일이나 앞으로 할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야. 그 남자와와 여자애는 또다시 그 방에 갇히게 돼. 갇히고, 또 갇혀. 영원히.”

러스트는 인간은 질병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번식을 관두고 다같이 손잡고 멸종하는 거라고, 최후의 날 밤에 모두가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내가 증언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진짜 대답은 이렇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거죠. 자살할 체질도 아니고요.”

그는 타인에게 동정심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주고 싶어하지도, 누군가로부터 갈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그가 어떤 종류의 책임감을 거의 강박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가 17년 전 자신이 해결했다고 믿었던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마틴은 러스트와는 달리 걸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적어도 17년 전에는 그랬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고, 경찰서 내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다. 미성년자 매춘부에게 돈을 쥐여주며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할 정도의 동정심도 있었다. 그런 그를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도,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는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는 그게 범죄 현장에서 물어오는 나쁜 것들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변명을 일삼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질병이라는 러스트의 판단은 너무나 옳은 것이 아닌가? 과거를 회상하던 마틴은 자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관심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러스트는 심문을 받는 동안 형사들에게 인간의 삶은 명칭한 의미로 만든 모래성이고, 사랑, 증오, 기억, 고통, 그 모든 게 일종의 꿈이라고, 마지막에 괴물이 등장하는 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형사들의 심문실을 박차고 나와서

마틴을 쫓아간 러스트는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전히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다고, 혹은 죽음조차 은폐된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다고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폭력과 타락의 연속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은 영영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악몽을 운운하던 사람이 저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닫는다. 인간은 질병이고, 삶은 악몽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그저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러스트는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러스트는 이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악몽의 반복을 끊어내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이다. 마틴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과거에 저지른 자기 자신의 과오를 그런 식으로 속죄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래서 그들은, 러스트와 마틴은 폭력과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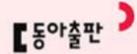
<트루 디텍티브>의 세계는 <CSI>의 세계와는 정반대에 놓여있다. <CSI>의 세계에서는 과학과 수사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정확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세계, 모든 것이 말끔하게 재단된 세계이다. <트루 디텍티브>의 세계에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드라마를 다 보고 난 후에도 우리는 이 끔찍한 범죄자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려고 하는지도저히 알지 못한다.(혹은 알고 싶지 않다) 그것은 이성의 영역 바깥에 있다. 지저분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세계. 러스트와 마틴은 죽음을 무릅쓰고 범죄자를 찾아내지만, 결국 진짜 범인을 처단하지 못한다.

마지막 장면, 헬체어에 탄 러스트와 마틴은 하늘을 바라본다. 그들은 어둠과 빛,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하늘에는 어둠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러스트는 곧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말한다.

“아까는 잘못 본 것 같아요, 하늘 말이에요, 태초에는 어둠만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 빛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러스트와 마틴이 살아가는 세계는 여전히 끔찍한 범죄들로 가득 차 있다. 범인들은 멀끔한 얼굴을 하고 배를 두드리며 살아갈 것이고, 또다시 여자들은 죽고, 아이들은 갇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러스트와 마틴 역시 다시 여자들과 아이들을 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너무 좌절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삶은 반복되는 꿈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꿈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초등 학부모라면 놓치지 마세요!



동아맘 서포터즈 모집

초등 교재 4권 + 특별 선물 증정



동아출판이 자사 초등 교재 체험을 할 초등 학부모 대상 서포터즈 동아맘 25기를 모집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동아맘 서포터즈'는 동아출판에서 자사 초등 참고서 체험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동아출판의 베스트셀러 교재는 물론 올 하반기 신간까지 두루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 24기 참여자 중 무려 99.1%가 '이후 서포터즈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서포터즈는 2023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초등 학부모 대상으로 총 20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서포터즈 모집은 동아출판이 운영하는 학부모 커뮤니티인 동아맘 카페에서 진행되며, 이벤트 페이지 내에 있는 신청 폼을 작성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된다. 선발 시, 동아출판 교재 체험 및 리뷰 작성,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온오프라인 설문, 좌담회 등 학부모 패널로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선발 시 제공되는 교재는 초등 독해 기본서 베스트셀러인 <빠작 비문학 독해>와 기본을 다지는 교과서 중심의 수학 개념서 <큐브수학 개념>, 새롭게 출간된 교과서 전단원 연산 유형이 수록되어 있는 <큐브수학 연산>, 강의가 더해진 교과서 맞춤 학습서 <백점 국어> 등 총 4권이다. 미션 성공 시 추가 혜택도 주어지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신세계 상품권(5만 원권)도 증정한다.

동아출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엄마표 학습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이번 동아맘 25기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학의 빈틈을 채우는 연산 학습서 <큐브수학 연산> 출간



<큐브수학 연산>은 초등 수학 교과서 전단원에 맞는 연산 문제를 수록하여 교과서 연계 학습이 가능한 연산 학습서이다. 하루 4쪽 부담 없는 분량으로 개념 원리부터 연습, 활용, 완성까지 체계적인 4단계 연산 유형을 공부할 수 있어 밀도 있는 수학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교과서 단원 중 어느 단원의 연산이 부족한지 점검할 수 있는 성취도 그래프와 스티커를 제공하고 실수하기 쉬운 문제는 따로 구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교재 내 QR 코드를 통해 개념 설명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돼 연산에 필요한 개념을 짚어줄 수 있다. <큐브수학 연산>은 1~6학년 1, 2학기 총 1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신과 등업을 위한 강력한 한 권! 중고등 수학 유형서 <수매씽> 출간



고등 <수매씽>은 수학 등업을 위한 강력한 한 권을 모토로, 최근 5개년 평가원과 교육청 최신 기출 유형을 반영하여 내신 적중률을 높인 수학 문제집이다. 쉬운 유형부터 응용문제까지 세분화된 유형과 풍부한 문제를 제공하며 문제 접근 방법과 출제 의도까지 담은 세심하고 친절한 해설을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EBS 수학 대표 강사이자 분당 '수학의 아침' 구명석 원장이 대표 저자로 참여한 것은 물론 학원 수학강사를 비롯해 고등 수학교사가 대거 참여해 교재의 완성도를 높였다. '수매씽'은 '고등 수매씽(수학 상, 수학 하,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중학 수매씽(1~3학년 학기별)'의 시리즈가 있다. 중학 수매씽은 유형복과 워크북 듀얼 구성으로 전국 1,000여 개 학교 기출문제를 완전 분석한 문제를 제공한다.

수매씽 출간을 기념하여 유튜브 '미미미' 채널과 협업하여 대치동과 목동에서 '길거리 수학 챌린지'도 진행했다. 중고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직접 수매씽에 수록된 문제를 풀고 체험하는 것으로, 영상 공개 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수매씽은 최신 기출, 최다 유형의 문제를 한 권에 담은 교재로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부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까지 두루 만족할 수 있는 교재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내신 등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내신과 수능의 빠른시작! <빠작 수능 국어 필수 어휘>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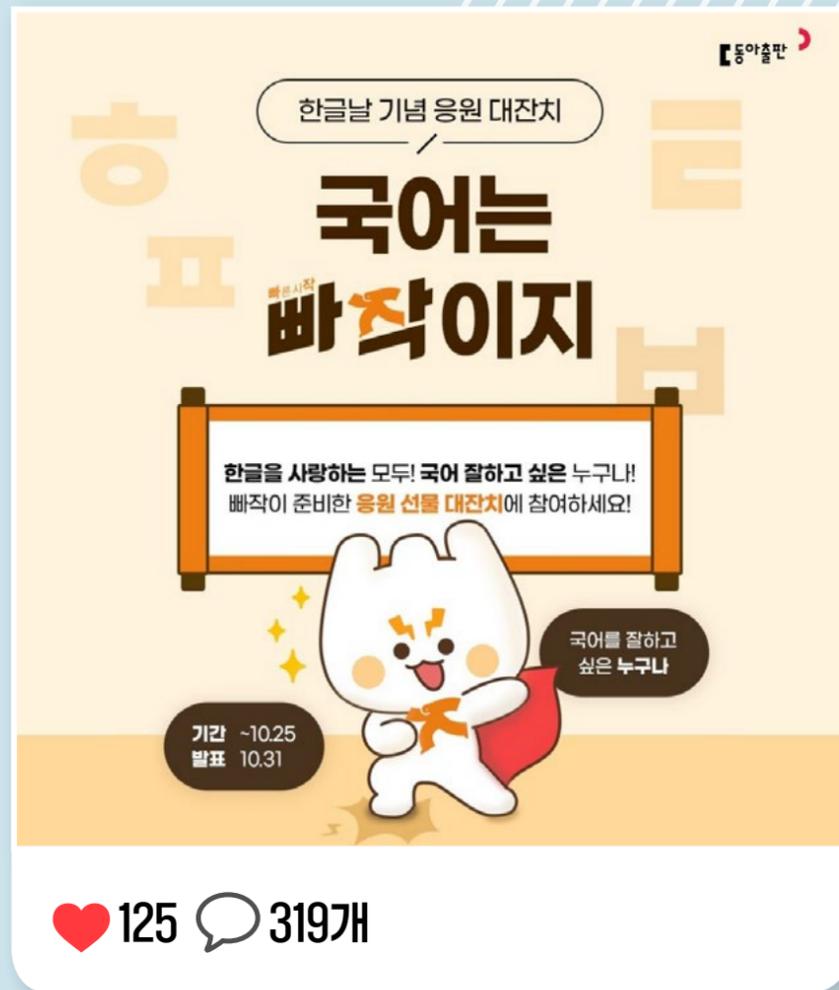
초중고 국어 대표 브랜드 <빠작>에서 새롭게 선보인 <수능 국어 필수 어휘>는 '쉬운 한자 풀이로 수능 국어 필수 어휘를 익히는 어휘력 기본서'이다.

최신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의 국어 영역 빈출 어휘를 주제별로 엄선하여 수록함은 물론 한자의 의미를 살린 어휘 풀이를 제공하여 어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한자 성어와 확인 문제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제별 또는 문항별 수능 국어 필수 어휘 30회로 구성된 <빠작 수능 국어 필수 어휘>는 어휘뿐만 아니라 기출 예문을 통해 독해력도 함께 쌓을 수 있는 고등 대상 교재로 예비고부터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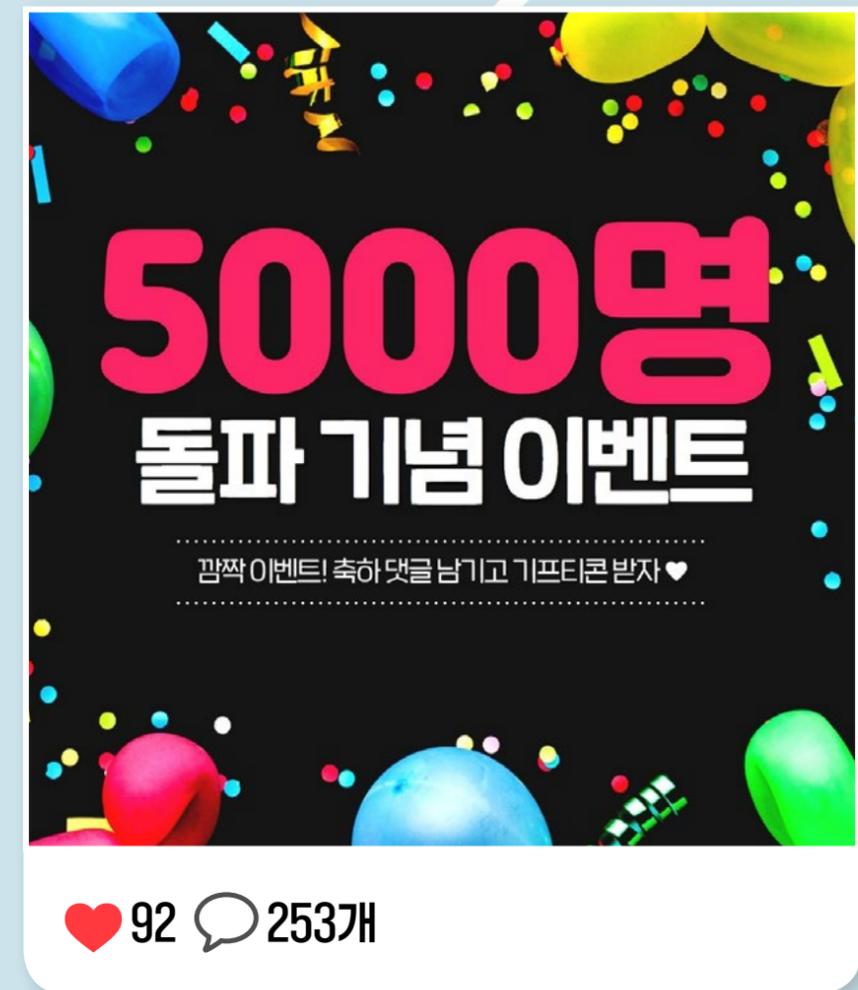
빠작 고등 시리즈는 2022년 하반기 고전 문학, 현대 문학, 비문학 독서, 고등 문법의 개정판 또한 출간되었으며 현재 예스24등 온라인 서점 및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글날 기념 응원 대잔치 〈국어는 빠작이지〉 이벤트 진행



동아출판이 SNS를 통해 한글날 기념 응원 대잔치 〈국어는 빠작이지〉를 진행하였다. 〈국어는 빠작이지〉는 초성 퀴즈와 「빠작」의 새로운 캐릭터 이름을 짓는 이벤트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이벤트를 통해 「빠작」이 초등학교 고등까지 탄탄한 라인업을 갖춘 국어 전문서임을 홍보하였다. 한편, 캐릭터 이름은 '빠작'으로 선정되었다.

학부모 커뮤니티 〈동아맘〉 회원 5,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진행



초등 학부모의 든든한 커뮤니티 〈동아맘〉이 회원수 5,000명을 돌파하여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벤트는 5,000명을 돌파한 〈동아맘〉 카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긴 50명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 3일간 진행된 이벤트였음에도 많은 회원들의 애정 어린 댓글이 달리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당신의 올해는 최고였습니다”



연말연시(年末年始)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해의 첫 부분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12월과 1월이 숫자가 바뀌는 감흥 외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12월은 올해의 삶과 내년의 삶이 이어지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또 송년회를 핑계로 코로나 탓에 보지 못했던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왁자지껄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보면 해의 마지막은 모두에게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시기인가 봅니다.

올해와 다음 해, 2022년과 2023년은 정말 경계를 넘어가는 의미 외에는 없는 걸까요? 세상 모든 일, 상황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미술 시간에 동그란 구 모형을 놓고 스케치를 해보았다면 어

어느새 새해를 맞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첫 장면처럼 겨울이 주는 새롭고도 서늘한 느낌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차고 눈발 날리는 계절을 맞이하고 나니 한 해의 터널이 참 짧게도 지나가는구나, 싶습니다.

느 한 면은 아주 밝고 빛이 나지만, 또 다른 면은 짙은 그림자가 있고, 어느 방향에서 보는가에 따라 음영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식상한 예지만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을 때조차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컵에 물이 반 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시각입니다. 대개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야기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한 가지 시각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맥락을 살피고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함께 번갈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12월이 쓸쓸하면서도 행복한 상반된 정서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아우르며 온전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12월에 어떤 의미를 붙이고 싶으신가요.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먼지 묻은 마음을 잘 닦아보는 일일 겁니다. 좋은 기억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생각이 나는 대로 메모 앱에 끄적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좋은 기억은 더 빛을 발할 수 있게요.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찍었던 사진을 보관만 하거나, 별 의미 없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리고 넘어가 버렸던 적도 많을 겁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순간을 담았던 사진과 영상들을 한 번 꺼내어 가만히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때의 감정과, 뭔가 벅차오르는 몸의 느낌을 떠올리면서요. '아, 올해는 즐거웠었구나'하는 마음을 좀 더 음미해봅시다. 올해 애썼던 일들도 다시 살펴볼까요? 열심히 했지만, 그리 탐탁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과정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의 공간에 너저분하게 던져졌던 것들을 모아 나를 보기 좋은 포장을 하고, 그럴듯한 의미의 꼬리표를 붙여 선반에 잘 정리해 놓는 일이야말로 연말에 꼭 어울리는 일일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엔 얼룩덜룩하고 지저분한 기억들을 잘 떼어 내기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트라우마)를 받았던 그때의 그 일이 쉬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플러스(+)는 아주 잘 하는 기관이지만, 반대로 마이너스(-)에는 인색합니다. 한 번 경험한 기억은 아무리 힘들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도 우리의 기억 네트워크에 단단하게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극복되는 과정은, 그 기억에 대한 의미가 변화는 과정입니다. 올해 상처입은 기억이라도, 그 기억에 대해 너무 끔찍한 당시의 상황만 곱씹기보다, 그 기억을 안고서도 한 해를 어떻게든 버티고,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겹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잘 해왔구나, 힘들지만 잘 버텼구나,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처에서 훌륭하게 잘 치유되고 있는 거니까요.

불편한 기억의 찌꺼기는 영원히 머릿속에 남을 테지만, 그 기억이 나에게 떠오를 때마다 잘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기억, 생각, 감정, 충동과 같은 콘텐츠들은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가 역의 플랫폼에 서 있을 때, 수시로 불편한 기차들이 내 앞에 정차했다, 떠날 때가 되어 떠나갑니다. 슬펐다가도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다가도 이내 다시 내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내 앞에 정차했을 때, 그 불편함을 붙들고 싸우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차는 떠나야 할 때, 그 플랫폼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불쾌함과 고통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그 기차를 어떻게 맞이하고, 잘 보내줄 수 있는지가 정신건강과 정서적 유연함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러 면을 잘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기 위해 일기를 비롯한 매일의 기록을 남기거나, 마음에 대한 글이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거리두고 보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간 소홀했던, 소중하고도 감사한 이들에게 연락을 해봅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connectedness)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 타인과의 적절한 연결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며, 그 안온함과 따뜻함은 삶의 기반이 됩니다. 12월이 바로 그 연결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12월이야말로 '연말이니' 핑계 대며 연락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쑥스럽게 인부를 전하고, 민망하게 연락을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니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바쁜 직장 일에 치이고, 타인의 낯선 말에 상처받고, 오해와 시기로 마음이 다쳤을 겁니다. 가슴 아픈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가 어떻게든 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해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꼭 최고의 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사람들과 부대

껴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Best와 Good에 기준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Not Bad라도 충분히 좋잖아요.

어미 고양이에게 아주 귀여운 아기 고양이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큰 네 마리는 튼튼하게 잘 크는데, 꼭 막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병약하고, 걸뺌하면 보금자리를 나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끼 고양이가 저 멀리서 길을 잃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미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최단거리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 지체없이 막내 고양이를 물어서 집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활아주고, 보듬어주고, 또 달래줄 겁니다. 막내 고양이가 더 울지 않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흥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죠. 마음속 고양이 울고 있으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그 모양이지'라고 비난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게 나에게 어땠었나요? 나는 어미 고양이로서 내 마음에서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에게 가장 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닥이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라는 말을 건네 줄 수 있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올해는 충분했습니다.



2022 ENOUGH

약력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은 현재 강남푸른정신과를 운영 중이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으며 인지행동치료, 불안장애치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저서로는 '나를 살피는 기술', '어른의 태도' 등이 있으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보험



안녕하세요. 수년간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활동해 온 이길우 변호사입니다. 기고를 요청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성인 대다수가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국민이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평소의 아쉬움을 이 지면을 통해 조금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유는 저 역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유용한 보험관련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고 대비하였다면 더욱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미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보험 처리를 해 보아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담을 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췌록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수월하게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해 본 사람들은 모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 한도 금액이 적고, 보험 범위도 작은 반면(보장 한도, 범위 등은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종합보험은 보험료가 훨씬 비싸기는 하지만 약정에 따라 보장 한도 금액이 많고(대인 무제한), 보험 범위도 넓으며, 각종 특약에 가입하면 생각지 못한 데서 오는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 등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면상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루고자 합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종합보험을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욕을 먹을 각오로 한 마디 하자면, 종합보험을 가입할 능력이 없다면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을 다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간호사로 일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하 편의상 '가해자'라 한다)을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들어보니,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을 하는 길에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성(이하 편의상 '피해자'라 한다)이 있어서 그 옆으로 지나가려는 찰나에 자전거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피해자의 나이는 20대 후반).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이 30대 초반의 가해자는 1-2년 전 처음으로 차를 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보험만 들 것인지, 종합보험까지 들 것인지 물어보는 설계사에게 보험료 금액만 듣고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누워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은 최소 30년 정도 되고, 그동안의 병원비와 간병비, 피해자가 벌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일실소득이라고 한다) 등을 합치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억 원 정도는 되죠.

물론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저 금액을 전액 배상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췌든 가해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익 원을 자비로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이라 그렇게 큰 손해배상금액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을리 없으니, 남은 평생 버는 돈 중 일부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써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받지 못하는 병원비 등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런 비극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만약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해자는 형사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간병비 등 걱정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형사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약 누군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불치, 난치의 중상해를 입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음주, 과속, 신호위반 등 소위 12대 중대과실이 끼어 있는 사고가 아닌 한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뒤에서 설명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자비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고, 돈이 없다면 고스란히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말죠.

운전자 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교통사고의 민사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음주, 뺑소니는 제외) 중대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중대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보험인데, 그 보험료는 월 2~5만 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너무나도 요긴한 보험이죠.

민식이법이 화제가 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다 한도를 높인 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합의금입니다.

필자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던 초반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사망 또는 1급 중상해 사고시)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이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출시 운전자보험은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1억에서 최대 3억까지 보장해주고 있고, 덩달아 실무상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형사합의금 금액이 1억 원을 웃돌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자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아내 분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는데, 가해자 측은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2,500만 원에 형사합의를 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망인의 목숨값과도 같은 형사합의금으로 누구는 1억 원을 받는데, 가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가족은 적게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국 가해자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합의를 보지 못해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도저히 피해자 유족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필자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대리인에 불과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죠).

특히 이 사건 가해자의 아내는 자기가 운전자보험만 알았다면, 그것만 가입했다면 남편이 구속이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것도 몰랐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자책하기도 했는데, 듣고 있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처럼, 운전자보험의 보장 한도가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되다 보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형사입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운전을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제가 형사사건을 변호한 의뢰인은 미용을 하는 여성으로 시속 20km도 되지 않는 속도로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다가 옆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입건된 후 피해자 측에서 1억 원을 요구하여 미용실을 폐업하고 돈을 마련해서 형사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앞에서 설명한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이 특약(또는 보험)은 가입자나 가입자의 가족(직계와 방계, 즉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장인, 장모까지 포함해서 보장된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가 되기 전,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을 가입해두면 정말 요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미로 사회인 야구를 즐기고 있는데, 야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캐치볼을 하다가 공을 잘못 던져서 운동장을 정리하고 있는 심판의 얼굴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부어올라 너무 미안했기에 물어보지도 않고 우선 병원에 가시라고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안경값까지 해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제가 일배책이 뭔지도, 일배책 특약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죠.

이후, 일배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제 아들이 리틀야구팀에서 취미로 야구를 하러 가서 배트를 들고 걸어가다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부딪혀 눈 옆이 찢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바로 다친 아이의 부모님께 연락해 사과를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모든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쳤을 때 일배책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도 똑같이 처리 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사고 상담 중에는 자전거 사고가 많습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자전거끼리, 또는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서 생기는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자전거 사고라고 큰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자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중에 한강에서 자전거끼리 부딪혀 상대방이 하지마비의 영구장애를 얻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 손해배상금액은 5억 원. 하지만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종합보험같은 것을 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일배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이자 가해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자신과 아내의 상해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도는 1인 1개 사고당 1억 원. 전부는 아니지만, 가해자는 총 손해배상금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자신과 아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일배책 특약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나머지 3억 원은 소유하던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1억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 일배책 특약의 보험료는 1천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보험인가요.

맺음말

지금까지 제 글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저를 변호사가 아니고 보험 영업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어느 보험사와도 관계가 없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고의로 누구를 해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보험에 대한 준비가 없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인생이 바뀔 만큼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보험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지만, 사건을 하다 보니 꼭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일상 속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에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력

이길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았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등록을 마치고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 일반 자문, M&A 등 기업법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세에스24문화재단 명정 사무국장 인터뷰

“우리 재단, 국내 유일무이한 동남아시아 문화교류 가능한 곳이죠”

Q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우선 지난 8월 한세에스24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짧게 소감 한마디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A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취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첫 재단과의 인연은 연구원으로 시작하게 됐고, 재단에 의미있는 사업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국내외 기업의 재단사업이나 CSR활동, 기부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재단의 연구원으로 함께 한 것도 영광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면서 제 생각 이상으로 의미있고 다양한 사업이 우리 재단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되었는데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들을 알아가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어 신선한 자극이라 생각합니다.

Q 현재 재단은 한세에스24홀딩스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단설립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주실 수 있을까요?

A 기업의 모태인 한세실업의 본격적인 해외사업 전개 때부터 우리는 동남아시아와의 인연이 깊었습니다. 사업으로 이어져 온 인연을 바탕으로 한세도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고민으로 재단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봉사활동, 국제교류문화전, 문학작품 소개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대학생들, 해외전문가들, 번역가 등등 어느 인연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었던 것 같네요. 재단 설립 시에는 생소했던 국가들과의 친교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들을 초심을 잃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Q 재단을 통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 규모 및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A 타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보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남아시아 국가 유망작가의 미술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미술전,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이화-예일 국제학술대회 지원, 인문학 연구지원,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이 문화교류를 하는 해외봉사단 등입니다.

해외봉사단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에서 선발된 봉사단원들이 베트남 현지 장애인 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봉사하며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봉사단이 직접 참여해 꾸려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2010년부터 운영 해오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책 번역 사업이 간접적인 교류 방법이라면 파견 봉사활동은 보다 직접적인 교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K-pop공연, 태권도, 부채춤 보여주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요. 서로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현재는 6번째 국제교류문화전으로 '말레이시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Q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특히 올해 초에는 재단에서 동남아시아 문학총서를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학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세실업은 창업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와의 인연이 참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법인들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있거든요. 그간 재단을 통해 미술전과 봉사 활동, 장학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로 동남아시아와 교류해 왔는데, 더불어 그들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동남아시아의 작품들이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관심받지 못했던 동남아시아의 작품들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제 자식들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을 본 작품들이 베트남작인 『영주』, 인도네시아작 『판데르베이크호의 침몰』, 태국작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입니다. 세 작품 모두 “전통과 현대의 갈등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공통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모두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이 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기작을 고려할 때에도 각국의 특성과 국민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의 우선순위로 두려합니다.

Q 올해 첫 '인문학연구지원사업'도 시작하셨다고요. 다른 재단에도 유사 장학사업이 많이 있는데 한세에스24문화재단만의 장학사업 차별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A 지난 9월 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논문 10편을 선정했어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이나 국제학술지(A&HCI, SCOPUS)에 게재된 결과물에 한해 편당 최대 1,2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해당 사업은 위기를 겪고 있는 순수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고, 연간 총 1억 2,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부족해지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정통 인문학 발굴의 가능성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주제가 다소 한정적인데, 우리 재단은 조금 더 포괄적인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종교, 미술사, 독일문학, 미학이론, 철학, 국어학 방언연구 등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한 학문에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이지요(웃음).

인문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와 같은 인



문학 연구자들의 고민의 무게가 인문학연구지원사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합니다.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실정인데요, 우리 재단만큼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무국장으로서 재단활동에 대한 홍보 말씀 혹은 미래의 장학 수혜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개인적으로 한세에스24문화재단의 사업들은 국내 여타 기업이나 재단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 성격의 사업들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문화권(동남아시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에 초점을 둔 사업이 많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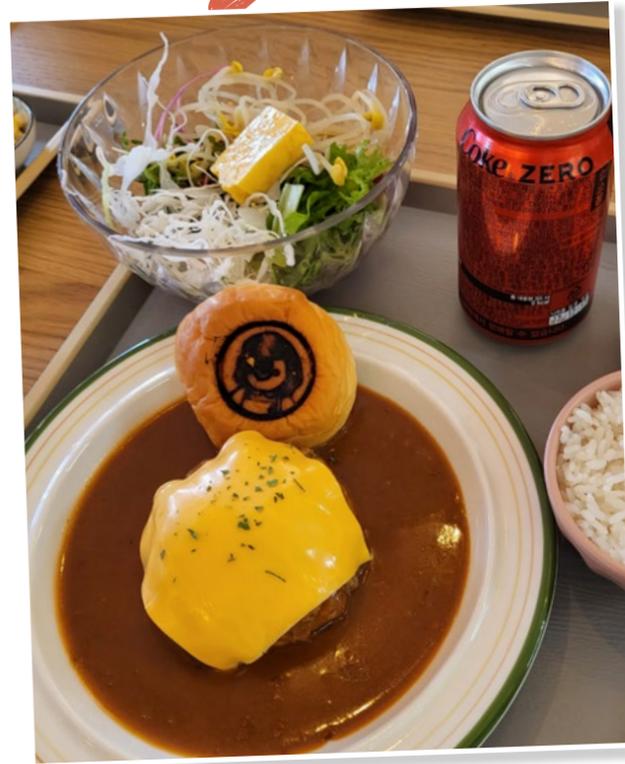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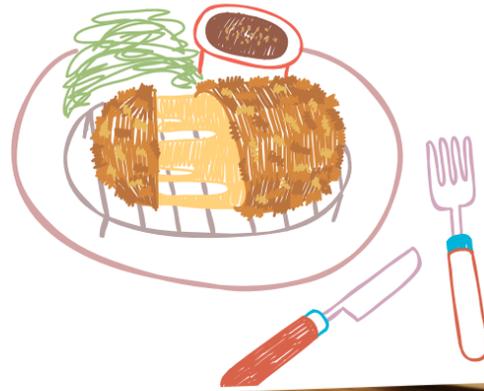
그리고, 조용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TV와 온라인매체에 저희 재단 소식(동남아시아문학 관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것도 참 반가우면서 뿌듯한 일입니다.

지금의 사업이 지속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 재단의 사업도 가치를 체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구요. 기성세대들의 감히 있는 생각을 깨려면 젊은 친구들, 현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가치관과 의견을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통된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세에스24문화재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세:인

대동맛지도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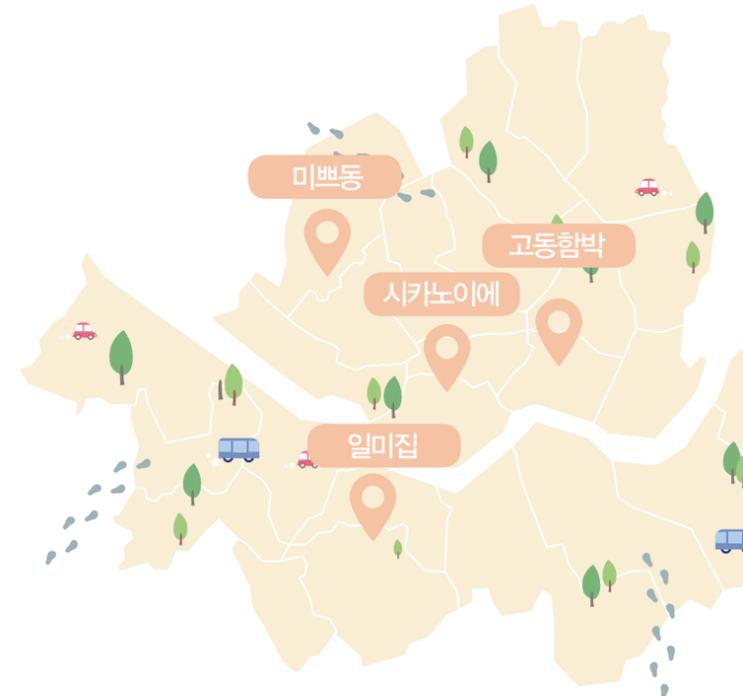
추천 임직원 : 동아출판 참고서마케팅팀 우지영 대리



일미집

주소 : 서울 용산구 후암로 1-1
 추천 메뉴 : 감자탕 대 (31,000원)

차원이 다른 감자탕을 맛보고 싶다면 일미집 추천한다. 갈비탕 느낌이라 처음에는 낯설지만, 먹다 보면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에 한번, 부드러운 살코기에 또 한 번 감탄이 절로 나온다. 다 먹고 난 후 라면 사리와 볶음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미쁘동



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38길 33-21 2층
 추천 메뉴 : 미쁘동(15,000원) / 토마토 연어국수(20,000원)
 신선한 해산물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미쁘동의 '미쁘동'을 추천한다. 참치, 우니, 연어알, 딱새우 등 다양한 재료가 아낌없이 담겨 있어 눈과 입 모두 즐겁다. 뽕밥을 먹다가 3분의 1정도 남았을 때 육수를 부어 먹으면 이 또한 별미. 웨이팅이 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한 맛집이다.

시카노이에

주소 :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32 신문로하우스 101호
 추천 메뉴 : 명란 새우 오므라이스 정식(15,000원) / 아보카도 명란 마요밥 정식(15,000원)
 경복궁역 근처 골목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음식점. 일본 가정식 전문점으로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이 먹고 싶은 날에 가면 좋다. 메인 메뉴도 그렇지만, 함께 나오는 샐러드와 계란찜, 반찬까지 성의가 느껴진다. 시카노이에의 시그니처 메뉴는 명란 새우 오므라이스. 특제 소스에 짭조름한 명란이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고동함박

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36-6 1층
 추천 메뉴 : 고동함박+미니쫄면 세트(15,900원) / 로제함박(13,500원)
 유명 먹방 유튜버가 다녀간 함박스테이크 맛집. 보기와 다르게 충분한 양으로 먹고 나면 든든하다. 세트 주문 시 쫄면이 함께 나오는데, 함박스테이크의 느끼함을 잡아줘 말 그대로 꿀 조합이다. 맛은 물론이고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해서 데이트 코스로 추천한다.

크리스마스에도 ‘밥 배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 등의 디저트가 대세이지만 그렇다고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밥 배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처럼 짠맛의 음식을 적당히 먹어줘야 남은 맛을 씻어주는 역할의 디저트가 훨씬 더 즐겁다.



Christmas Desert

풍요로움과 푸짐함, 나눠 먹는 식사의 상징성 등을 반영하는 크리스마스 요리는 대체로 ‘통구이’다. 한 달 전 추수감사절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칠면조를 먹기도 하고, 오리나 거위 등도 통째로 굽는다. 중세에는 멧돼지 대가리 통구이가 대세였다.

햄 통구이도 크리스마스의 단골 메뉴다. 돼지 뒷다리를 뼈째로 훈제해 익힌 햄의 전체에 대각선의 격자로 칼금을 넣고 정향을 촘촘히 박은 뒤 오븐에 굽는다. 익히는 사이사이 흑설탕이나 메이플 시럽으로 만든 글레이즈를 발라 반짝임과 달콤함을 불어넣는다. 물론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육류를 먹지는 않는다. 폴란드 등 동부 및 중앙 유럽에서는 잉어 같은 생선이 주 메뉴인 열두 가지 요리를, 포르투갈에서는 바이킹의 세계 진출용 식재료였던 염장 건조 대구의 바칼라우를 먹는다.

이런 메뉴로 식사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 드디어 디저트의 차례다. 크리스마스의 대표 케이크로는 부슈 드 노엘(Bûche de Noël)이 있다. 부슈 드 노엘은 크리스마스에 때는 행운의 통나무, 즉 ‘율 로그(Yule Log)’의 모양을 따 만드는 케이크다. 부슈 드 노엘의 기본은 롤케이크로, 얇은 스펀지 케이크인 비스퀴에 버터크림을 바르고 둥글게 말아 모양을 잡는다. 그리고 겉면에도 짙은 색깔의 크림을 바르고 포크 등으로 나무 껍질을 상징하는 골을 넣어 마무리한다. 부슈 드 노엘은 전통적으로 머랭(거품기로 휘저어 올린 계란 흰자)을 구워 만든 버섯 모양 과자로 장식한다.

부슈 드 노엘은 프랑스의 음식이지만 기원은 유럽 전체 또는 바이킹의 북

유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유럽에는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한겨울에 다음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장작불을 지피던 전통이 있었다. 그런 전통이 난로가 사라진 근대, 즉 19세기 후반부터 장작을 닮은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풍습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부슈 드 노엘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부슈 드 노엘이 노르웨이의 신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고대 노르웨이인들이 동지 때 다시 해가 뜨는 걸 기뻐하며 장작을 땀다는 이야기이다. 태양을 지구에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불의 바퀴라 믿었으므로, 다시 해가 뜨는 걸 해의 귀환이라 믿었고 기렸던 것이다. 바로 이 장작의 풍습이 전해 내려오면서 케이크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이다.



Bûche de Noël

프랑스에 부슈 드 노엘이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파네토네가 있다. 작은 케이크를 의미하는 파네토(panetto)에 접미사(one)가 붙어 ‘큰 케이크’가 되었는데, 사실 조리법을 보면 발효반죽으로 만드는 빵이다. 하지만 계란과 버터를 푸짐하게 쓴 반죽에 건포도나 설탕을 입힌 시트러스 류의 껍질, 체리 등

을 더해 맛과 열량 면에서 케이크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게다가 1킬로그램을 넘길 정도로 큰 빵이라 케이크보다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내주는 풍채를 자랑한다.



panettone

역사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파네토네의 고향은 밀라노인데,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15세기, 공작의 매 조련사인 우게토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제빵사의 딸을 사랑해 밤마다 빵집에 찾아가 밀회를 나누었는데, 어느날 어려움이 들이닥친다. 제빵사의 견습생이 아프고 경쟁 상대가 생겨 빵집이 매상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우게토는 사랑하는 이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공작의 매를 판 돈으로 버터를 사 빵 반죽에 더하기 시작했으니 그게 파네토네의 시초라는 것이다. 버터 덕분에 빵집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우게토는 한술 더 떠 계란부터 건포도까지 각종 재료를 더해 오늘날의 파네토네의 원형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다른 이야기에는 몇백 년 전의 제빵사 토니가 등장한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아버지인 부유한 상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브랜드에 절인 과일, 버터, 계란, 설탕 등의 고급 재료로 빵을 굽는다. 상인 아버지는 빵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딸과의 결혼을 허락한 것은 물론 밀라노에 빵집을 차려준다. 그렇게 탄생한 ‘토니의 빵(Pane Tony)’이 결국 파네토네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파네토네는 전통적으로 산도가 높은 자연발효종으로 만들어 유통기한이 길다. 이탈리아의 전통을 따르자면 파네토네에는 고소하고 진한 마스카르포네의 크림을 곁들여 먹는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타고 풍성함에 풍성함을 한 톨 더 입혀 먹는 것이다. 한편 파네토네는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남겼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브런치로 먹어도 좋다. 약간 푸석거리는 질감에 스펀지 같은 조직이 계란물을 워낙 잘 빨아들이므로 프렌치 토스트에 아주 잘 어울린다.

영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하면 음식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유럽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하지만 독일에는 부슈 드 노엘, 파네토네와 더불어 유럽 크리스마스 디저트의 삼국지를 완성하는 빵이 있으니 바로 슈톨렌이다. 슈톨렌의 뿌리는 강림절(크리스마스 전의 4주)에 금식하며 먹었던, 버터 없이 기름만 쓴 빵을 먹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크리스마스용 빵으로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린 1545년에 처음 구워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Stollen

슈톨렌은 원래 특징 없는 보통의 빵이었다가 세월을 겪으며 점차 디저트용 과자로 변모했다. 효모를 쓰는 발효빵이지만 절인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단맛나는 아몬드 페이스트인 마지판까지 반죽에 채워 실제로는 과자에 가깝다. 게다가 가루 설탕을 표면에 소복히 뿌려 오래 두고 팔기 때문에 먹을 때에는 더 꾸덕꾸덕하고 마른 느낌이다. 파네토네나 부슈 드 노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간단할 뿐더러 전통적인 모양새 자체도 대강 만든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요즘 크리스마스 디저트로 꽤 각광받고 있다. 단맛이 꽤 강하므로 과자처럼 얇게 저며 차나 커피 등과 함께 먹는데, 굳이 정성을 따지자면 아침 메뉴이다. 드레스덴에서는 매년 강림절의 두 번째 일요일에 슈톨렌 축제가 열린다. 15세기부터 열려 작센 왕국이 몰락했던 1918년 중단되었다가 1994년부터 재개되고 있다.



약력
이용재 음식 평론가 겸 번역가. 한양대학교와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건축 및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애플랜타의 건축 회사 bs 디자인에서 일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저자로서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한식의 품격’, ‘외식의 품격’, ‘냉면의 품격’, ‘미식대담’, ‘조리 도구의 세계’, ‘식탁에서 듣는 음악’을 썼다. 옮긴 책으로는 ‘실버 스푼’, ‘뉴욕의 맛 모모푸쿠’, ‘인생의 맛 모모푸쿠’, ‘철학이 있는 식탁’, ‘식탁의 기쁨’, ‘모든 것을 먹어본 남자’ 등이 있다

연말연시 파티, 탱글탱글 신선한 '굴 요리' 어떠세요?

애호박 굴전

안녕하세요 제철식재료로 간편하고 맛있는 밥상을 소개하는 요리요정 이팀장입니다.

모임도 행사도 많은 일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즌입니다. 보통이면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많이 드실 텐데요, 인원이 많이 모인다면 보통 모임보다는 파티형식으로 즐기는 추세인 거 같아요. 이럴 때 집에서 좀 더 다이닝스러운 파티를 제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시즌별로 제철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초대를 많이 하는데 음식을 많이 해놓고 덜어 드셔도 좋지만 이번에는 트레이에 작은 그릇에 1인분씩 담아서 심플하지만 깔끔하고 단아한 상차림으로 연말파티를 진행해 봤어요.

요즘은 사시사철 식재료가 많이 보여서 특별히 제철 식재료 없이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제철식재료가 특히 맛이나 품질이 더 좋은 거 같아서 제철 식재료를 그때그때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재료와 주제는 굴입니다.

보통 굴은 생으로 먹거나 찜이나 구워서 많이 먹는데 요즘은 솔밥이나 파스타도 많이 해서 드시더라고요.

굴의 특이한 향과 식감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알려 드리는 레시피 대로 굴을 활용해 보신다면 피부에 좋고 몸에 활력을 찾아주는 굴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알려드릴 굴요리는 애호박 굴전입니다. 굴전은 보통 밀가루 입히고 계란물을 입혀서 간단하게 부쳐서 드시는데요, 이러면 식감은 물거리고 시간이 지나면 굴향이 변해서 호불호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굴전에 채썬 애호박을 넣어서 식감은 좀 더 아삭거리고 시간이 지나도 굴과 호박의 조합이 맛있는 애호박 굴전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애호박 굴전의 포인트는 애호박을 얇게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여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러면 전 부칠 때도 쉽고 따로 간장을 찍어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전을 드실 수 있어요.



재료

굴 200g, 애호박 1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식용유 6큰술
반죽 달걀 2개, 밀가루 · 감자전분 3큰술씩, 소금 · 참치액 1/2큰술씩

만들기

- 1 굴은 소금물에 행구고, 애호박은 얇게 채 썬 후 소금을 뿌려 절인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 2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잘게 썬다.
- 3 볼에 분량의 반죽재료와 잘게 썬 고추를 넣고 잘 섞는다.
-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스푼 올리고 가운데 굴을 올린다.
- 5 굴 위에 반죽을 살짝 덮어준 후 앞뒤로 노릇하게 지진다.

두 번째 요리는 굴조림입니다. 굴조림하면 두부조림도 아니고 장조림도 아니고 어떨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중국식으로 표현해봤어요. 굴은 조직이 흐물거려서 미리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혀 두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튀기듯 구워 봤습니다. 이러면 겉바속촉 굴이 탄생해요. 이때 조림장국물을 부어 졸이면 굴에 간도 배고 국물은 살짝 걸쭉한 굴조림이 탄생해요. 고추나 파를 곁들여도 좋지만 저는 샐러리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였어요. 밥반찬으로도 좋고 화이트와인 안주로도 너무 좋은 굴조림입니다. 보통 굴로 국을 끓이면 굴국밥이나 굴짬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깔끔하고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소고기 들어간 미역국도 맛있지만 바다향 나는 굴미역국도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오히려 소고기미역국보다 간단해요. 불린 미역을 살짝 볶은 후 물을 넣고 끓이다가 굴만 넣으면 끝이에요. 간은 간단하게 참치액으로만 하면 깔끔하고 깊은 맛 나는 굴미역국이 완성됩니다.

굴조림



재료

굴 200g, 전분가루 3큰술, 아스파라거스 3대, 샐러리 1대, 식용유 4큰술
조림양념 맛간장 2큰술, 미림 2큰술, 물엿 1큰술, 물 5큰술, 후춧가루 약간

만들기

- 1 굴은 소금물에 행군 후 전분가루를 골고루 무친 다음 남은 가루를 털어낸다.
- 2 아스파라거스와 샐러리는 어슷하게 썬다.
- 3 분량의 조림양념 재료를 잘 섞는다.
-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굴을 앞뒤로 살짝 지저낸다.
- 5 ④에 조림양념과 아스파라거스, 샐러리를 넣고 자작하게 조리한다.
- 6 접시에 담고 통후추를 살짝 뿌린다.

보통 굴무침은 미나리나 채소와 같이 곁들여서 많이 드시는데 굴무침을 새콤달콤하게 덮밥으로 먹으니 이게 또 별미더라고요. 채썬 무와 굴을 고추장 양념에 미리 버무려 놓고 따뜻한 밥에 올려 참나물과 곁들여 비비면 상콤매콤한 덮밥 완성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념에 고추장이 들어가야 밥을 맛있게 비빌 수 있다는 거죠. 채썬 무와 참나물의 아삭함이 굴 식감과 잘 어울려요. 한 그릇만 있어도 한 끼 식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미역국



재료

굴 150g, 미역 10g(마른미역 기준),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 참치액 2큰술씩

만들기

- 1 미역은 물에 불리고, 굴은 소금물에 행군다.
- 2 냄비에 불린 미역과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달달 볶는다.
- 3 ②에 물 4컵을 붓고 한소끔 끓인다.

굴 덮밥



재료

굴 150g, 무100g, 청양고추 1개, 참나물 50g, 공기밥 3개
양념 고추가루 · 식초 2큰술씩, 고추장 · 설탕 · 다진 마늘 · 참기름 · 참치액 1큰술씩, 깨 약간

만들기

- 1 굴은 소금물에 행구고, 무는 얇게 채 썬다. 참나물은 2cm 길이로 썬다.
- 2 청양고추는 어슷 썬다.
- 3 분량의 양념재료를 고루 섞은 후 굴과 채 썬 무를 넣고 살살 버무려 냉장 고에 30분 정도 둔다.
- 4 밥에 굴무침을 올리고 잘게 썬 참나물과 청양고추를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두른다.

약력

이정용은 '요리요정 이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각종 기고를 통해 활약하며 쉽고 맛있는 요리를 전파 중이다. 궁중음식연구원 입문, 의계, 고조리서 과정을 이수했으며 궁중음식 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했다. 한라식품 총괄이사로 재직 중이며 쿠킹스튜디오 '요리요정 이팀장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 요리하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아는 이 시대의 재미남으로 불리고 싶은 바람이 있다.

